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마을의 지명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

- 남제주군 안덕면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오영선

2003년 8월

제주도 마을의 지명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

- 남제주군 안덕면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 성 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제출자 오 영 선

오영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제주도 마을의 지명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

- 남제주군 안덕면을 중심으로 -

오 영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송 성 대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을 사례로 이 지역에 존재하는 지명의 분포 특성과 유래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는데 있다. 또한 지명을 통하여 각 마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안덕면 소재 12개 행정리에 분포되어 있는 528개의 지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덕면 내에 분포되어 있는 528개 지명 가운데 자연지명은 316개(59.8%), 인문지명은 208개(39.4%), 기타지명은 4개(0.8%)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항목별 빈도율을 보면, 고사(故事)지명이 109개(20.6%)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어서 지형·지세지명 91개(17.2%), 동·식물지명이 각각 88개(16.7%), 자연물지명 73개(13.8%), 위치·방위지명 64개(12.1%), 경제지명 53개(10%), 교통지명 23개(4.4%), 유적·유물지명 23개(4.4%) 순으로 나타났다.

3. 동리별 주요 분포내용을 보면, 물지명은 감산리와 창천리에, 밭·과수원지명은 감산리와 동광리, 서광동리에, 전설/유래지명은 광평리와 사계리, 상천리, 서광동리, 서광서리, 화순리에, 지물형지명은 대평리와 상창리에 많이 분포되어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지명은 화순리에, 식물지명은 덕수리와 창천리에, 신앙지명은 창천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4. 임해지대(감산, 대평, 사계, 창천, 화순리)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300개로서 전체의 56.8%를 차지한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동물 및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각각 28개(9.3%)이다. 이어서 지물형 지명이 23개(7.7%)로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물 및 밭·과수원, 신앙 지명이 각각 21개(7.0%)로 나타났다.

5. 중간지대(덕수, 상창, 서광동리, 서광서리)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126개로서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전설/유래와 관련한 지명으로 22개(17.5%)이다. 이어서 지물형과 식물지명이 각각 13개(10.3%) 나타났으며, 물과 밭·과수원 지명도 각각 11개(8.3%)로 집계되었다.

6. 산간지대(광평, 동광, 상천리)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102개로서 전체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산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16개(15.7%)이다. 이어서 밭·과수원지명이 12개(11.8%), 식물지명이 11개(10.8%)이다.

7. 지명을 통하여 각 마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였다. 지명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해당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어온 역사적인 내용들을 명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명은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일부 반영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연구동향	1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4
II. 연구지역 개관	6
1. 안덕면의 지리적 환경	6
2. 안덕면 지명의 형성과정	9
III. 지명의 분포	12
1. 지명의 유형별 분류	12
2. 지명의 유형별 분포 특징	15
1) 동리별 분포 특징	16
2) 지대별 분포 특징	41
IV. 지명의 유래	49
1. 자연지명	49
1) 지형·지세	49
2) 위치·방위	55
3) 자연물	60
4) 동·식물	65
2. 인문지명	73
1) 경제	73
2) 교통	77
3) 故事	80
4) 유적·유물	87
3. 기타지명	91
V. 요약 및 결론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8

표 목 차

표 1. 각 리별 연구지명 분포	4
표 2. 안덕면의 인구밀도 및 지명밀도	8
표 3. 리명의 변경	11
표 4. 명명요소와 명명기반의 유형화	14
표 5. 지명의 유형별 분포	15
표 6. 감산리 지명분포	17
표 7. 광평리 지명분포	19
표 8. 대평리 지명분포	21
표 9. 덕수리 지명분포	23
표 10. 동광리 지명분포	25
표 11. 사계리 지명분포	27
표 12. 상창리 지명분포	29
표 13. 상천리 지명분포	31
표 14. 서광동리 지명분포	33
표 15. 서광서리 지명분포	35
표 16. 창천리 지명분포	37
표 17. 화순리 지명분포	39
표 18. 각 동리별 지명유형 분포	40
표 19. 지대별 지명 분포	48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지역의 위치와 연구지역	7
그림 2. 지물형 지명 분포	54
그림 3. 위치·방위지명 분포	58
그림 4. 물 지명분포	62
그림 5. 동물지명 분포	68
그림 6. 식물 지명분포	72
그림 7. 밭·과수원 지명분포	75
그림 8. 논 지명분포	76
그림 9. 교통 지명분포	79
그림 10. 전설/유래 지명분포	86
그림 11. 유적·유물 지명분포	90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동향

지명(地名)은 땅이름을 말한다. 땅은 지형, 토양, 동·식물, 기후, 지질, 경관 등 다양한 지리적 조건의 총체이면서 인간이 밭을 딛고 몸담고 살아가는 터전이다. 사람에게 저마다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곳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다. 땅이름은 인류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곳의 지형(地形)·지물(地物)을 구분할 필요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¹⁾

지명은 환경지각의 결과이다. 지명의 명명과정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지명은 객체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특성과 명명 주체로서의 인간의 의식·감정·세계관 등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명의 명명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경험의 일부로서 환경 대상의 확인·식별 및 공간의 인지 구조화를 위한 필요에서 수행된다.²⁾

지명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역에 대하여 나름의 정체성을 밝히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지역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간활동이 복합된 지리적 공간을 뜻하는데, 인간집단의 여러 활동이 전개되는 장소의 복합체로서 다른 공간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³⁾

지명연구는 국어변천의 역사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이동 경로와 문화교류의 규명자료, 전통문화와 시대상 연구, 여러 학문 연구의 종합적·보조적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일정 지역의 특성, 즉 지역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옛 땅이름의 지리적 정세인 지형·위치·유물 등을 살펴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땅이름의 전파와 분포의 지역적 구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밝혀낼 수 있다.⁴⁾

1) 강길부(1997), 『땅이름국토사랑』, 집문당, p. 17.

2) 이환곤(1986), “충청남도의 지명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3) 안영진(2002),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도서출판 한울, pp. 333-334.

지금까지 지명연구는 주로 국어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보면, 중등학교 교과서의 지명분석⁵⁾, 지명의 유형별 분포와 지리적 환경과의 상관성 고찰⁶⁾, 거주지로서의 자연촌락에 대한 환경지각 내용 고찰⁷⁾, 향토 역사지리적 입장의 연구⁸⁾,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명의 연구⁹⁾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대상 지역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에 편중되고 있다.

제주도 지역에 대한 지명 연구도 주목할만한 연구성과¹⁰⁾가 있지만, 국어학분야에

-
- 4) 강길부, 전계서, pp. 19-21.
- 5) 조강민(1975),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명분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인석(1980), “중학교 사회 I 교과서의 지명분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최영춘(1981), “고등학교 인문지리 교과서의 지명분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6) 전경숙(1979), “충북지명의 유형 분포에 관한 지리적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신현웅(1981), “충북 보은군 촌락명의 유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환곤(1986), “충청남도 지명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안교식(1989), <경남 합천군 취락명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김옥자(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이학원 외(1996),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3)”, 강원문화연구, 제15집.
- 7) 정진원(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지리학 논총, 제9호.
- 8) 이성학(1975), “한국의 지명에 관한 연구”, 경북대 논문집, 제20권.
- 9) 이현영(1979), “한국 도시의 언어 경관”,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9집.
신중성(1982), “종교적 언어 경관의 분포 유형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제17집.
원학회(1983), “서울시의 동명고”, 지리학총, 제10집.
김연옥(1986), “한국의 기후 지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남영우(1996), “고지명 ‘두모’연구”, 지리교육논집, 제36집.
윤홍기(1997), “뉴질랜드 마오리 지명을 통해서 본 우리 나라 토박이 땅이름의 지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0) 제주도 지역의 지명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진성기(1960), 『제주도지명의 유래』, 제주도관광안내소.
——(1960), 『남국의 지명유래』, 제주민속총서7, 제주민속연구소.
石宙明(1968), 『濟州島 隨筆』, 濟州島叢書4, 寶晉齋.
——(1971), 『濟州島 資料集』, 濟州島叢書6, 寶晉齋.
심여택(1972), “濟州島地名研究-그 特性을 中心으로-”, 『논문집』, 4, 제주대.

서의 지명연구가 대부분이며, 지리학 분야에서의 지명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연구지역면에서 볼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에 분포된 마을지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제주군의 지명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제주군 안덕면을 사례로 이 지역에 존재하는 지명의 분포 특성과 유래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이다. 안덕면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지명분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필자의 고향이므로 현지 지명에 대한 확인 조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지명을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규정하고, 각 동리별, 각 지대별로 지명의 분포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둘째, 지명의 유래를 통해 각 마을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_____ (1975), “濟州島地名의 構成-中文面의 地名을 中心으로-”, 『국문학보』, 7, 중문리학술조사특집, 제주대.

_____ (1976), “地名研究序說” 『논문집』, 8, 제주대.

金洪植(1978), “濟州島地方의 地名에 대하여-특히 地名接尾辭를 中心으로-” 『제주대논문집』, 10, 제주대.

최범훈(1981), “제주도지명연구”, 『경기대논문집』, 8, 경기대.

_____ (1983), “제주도특수지명에 대하여”, 황희영박사송수기념논문.

朴用厚(1988), 『濟州方言研究(考察篇)』, 과학사.

_____ (1992), 『濟州島 옛땅이름연구』, 제주문화사.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12개 행정리¹¹⁾에 분포되어 있는 528개의 지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림1>과 같다.

<표1> 각 리별 연구지명 분포

리 대상	감산	광평	대평	덕수	동광	사계	상창	상천	서광 동	서광 서	창천	화순	계
지명 수	62	38	60	38	46	87	33	18	25	30	31	60	528

본 연구에서 지명수집을 위해 한글학회(1984)의 『한국지명총람 16』을 주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지명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남제주군(1995, 1996)에서 발행한 『우리固有地名由來集』과 『남제주군 固有地名』, 국립지리원의 1:50,000 지형도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 보충자료로 진성기(1960)의 『남국의 지명유래』, 박용후(1992)의 『濟州島 옛땅이름 연구』, 탐라문화연구소(1990)의 『제주도부락지 I, II, III』을 비롯하여 『군지』, 『향토지』, 『리지』 등을 이용하였다. 지명에 나타나는 제주도 지역의 지역어는 제주도(1995)에서 펴낸 『濟州語辭典』의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자료에서 수집한 지명의 유래와 어원을 분석하고, 명명기반에 따라 지

11)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서 ‘시와 구에는 동(洞)을, 읍·면에는 리(里)를 둔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리」는 크게 ‘법정리’와 ‘행정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리 제도를 도입(제4조 5항), 이를 중심으로 리 행정을 떠나가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130개의 법정리와 172개의 행정리가 있다. 이 가운데 남제주군에는 49개의 법정리와 76개의 행정리가 있다.” 제주시사계 향우회 (1996), <사계향우-창간호>.

명을 유형화하였다. 지명에 대한 명명 기반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고,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크게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나누어 유형 분류하였다.

둘째, 각 동리별(12개 행정리), 각 지대별(임해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로 분포하는 지명의 유형과 분포 특성을 표로 작성하여 연구 지역 전체에서의 출현빈도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각 동리별 지명의 유래를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이 잘 나타나는 몇 개 유형을 선정, 답사하여 그 결과를 지도화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지명어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주관성이 개입한다.

둘째, 고유지명이 한자지명으로, 한자지명이 고유지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지형도와 지명 유래집 등에 기재된 지명 수와 실제의 지명 수간에 차이가 있다.

넷째, 지명의 지도상의 위치와 실제 위치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원이나 유래 등 명명기반이 확실한 지명을 우선 수집하였으며, 지명이 중복될 경우는 현지에서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현지 답사를 통하여 실제 지명의 분포와 유래를 고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화하였다.

II. 연구지역 개관

1. 안덕면의 지리적 환경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남제주군은 한라산(1,950m) 남쪽에 서귀포시를 두고 동서쪽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과 인접하고 있다. 토지 이용을 보면, 대정, 성산, 안덕 해안지역에 약간의 논이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과수원 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쪽으로 경사가 완만한 수 십 개의 기생화산(오름)들이 있으며, 용암층 밑을 복류하는 지하수는 해안지대에서 용출되므로 주민들에게 음료수로 제공된다. 남제주군의 취락은 일부 중산간 마을을 제외하면 해안선 부근 용천지대에 형성되어 있다.¹²⁾

안덕면의 총 면적은 105.5km²로 남제주군 전체 면적(615.25km²)의 17.1%를 차지한다. 위치는 동경 126도 20분, 북위 33도 8분 일대에 이르는 제주도의 서남부 지역에 해당한다. 동쪽으로는 군산과 창고천을 경계로 서귀포시 중문동과 접한다. 서쪽으로는 단산을 경계로 대정읍과 닿으며, 남쪽은 형제섬을 앞에 안고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북쪽은 돌오름, 당오름, 왕이매를 경계로 북제주군과 가까이 있다.

안덕면의 기후는 연평균 14℃로 온화한 편이며, 대평, 화순, 사계리 등 해안가에 형성된 마을을 제외하면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지대에도 취락이 입지하였다. 상천과 광평, 상창, 동광리, 서광리 등은 제주도에서도 고지대에 형성된 마을이다.¹³⁾

12) 남제주군(2002), 『제42회 통계연보 2002』, 남제주군청, p. 34.

13) 남제주군(1986), 『남제주군지』, 남제주군청, p. 418.

<그림1> 연구지역의 위치와 연구지역



아래의 <표2> 자료를 보면, 안덕면의 마을규모는 인구수에서 볼 때 화순리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사계리, 덕수리, 감산리 순으로 되어 있다. 취락은 화순리, 사계리 등 주로 바다와 인접한 임해지대에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간지대인 광평리와 상천리는 인구밀도가 낮으며, 상천리는 지명밀도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안덕면의 인구밀도 및 지명밀도

(2001년 12월31일 현재)

리 명	면적(km ²)	인구수(명)	인구밀도(명/km ²)	지명밀도(지명수/km ²)
감산리	4.7	960	204	13
광평리	10.3	62	6	4
대평리	1.8	672	373	33
덕수리	9.9	1,036	105	4
동광리	15.8	435	28	3
사계리	8.0	2,399	300	11
상창리	13.1	367	28	3
상천리	16.9	125	7	1
서광동리	8.0	406	51	3
서광서리	9.6	529	55	3
창천리	2.1	742	353	15
화순리	5.3	2,817	532	11
계	105.5	10,550	100	5

자료: 남제주군(2002), 전계서, pp. 64-65.

2. 안덕면 지명의 형성과정

남제주군은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가 실시되면서 대정·안덕·중문·서귀·남원·표선·성산 등 7개면이 설치되었다. 1956년 7월 8일에는 남제주군 지역에서 서귀·대정읍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61년 10월 1일 2읍5면으로 군자치제가 실시되었고, 1980년 12월 1일에는 남원·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다음해인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서귀포시 설치로 분리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남제주군은 3읍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덕면은 이 가운데 하나이다.

안덕면은 조선조 태종(1416) 당시 안무사 오식(吳湜)의 건의에 따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분리되면서 대정현의 동면 좌면에 속해 오다가 1931년에 중면(中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¹⁴⁾ 본래 대정군(大靜郡)의 지역으로서 그 복판이 되므로, 중면이라 하여 감산(柑山), 광평(廣坪), 덕수(德修), 동광(東廣), 사계(沙溪), 상창(上倉), 서광(西廣), 창천(倉川), 상천(上川), 화순(和順)의 10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편입되어 창천, 상창, 감산, 화순, 덕수, 사계, 동광, 서광, 광평, 대평의 11개 리로 개편, 관할되었다. 1935년 4월 1일 안덕계곡의 이름을 따서 안덕면으로 고치고, 1946년 8월 1일 남제주군에 편입되었다.¹⁵⁾

안덕(安德)이란 ‘안에 있는 덕’을 의미한다. 즉 경치가 수려한 안덕계곡 안 깊숙이 200m 지점 양측에 웅장한 바위가 솟아올라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데 이 엉덕(바위)이 ‘안에 있는 덕’이므로 ‘안덕’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많은 폭포수가 있고 시냇물이 흘러 소(沼)를 이루고 있으므로 옛날부터 ‘안덕소’ 또는 ‘안덕천’이라고 불려왔던 것이며 또 계곡이 되고 있으므로 ‘안덕계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명소의 이름에서 안덕면이 연유된 것이다.¹⁶⁾

지명은 성격상 뚜렷하게 만들어진 때를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덕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다. 고고학적

14) 남제주군(1986), 전계서, pp. 414-417.

15)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제주·전남편)』, 한글학회, pp. 385-386.

16) 김용하(1991), 『안덕향토지』, p. 45.

으로 화순리에 패총과 유물산포지, 대평리에 고인돌 및 유물산포지, 감산리에 동굴 집자리 유적 등이 확인된다는 보고¹⁷⁾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안덕지역에는 고려 충렬왕 26년(1300) 제주도 동서부에 동·서도현이 설치될 때 현 안덕면 일대에는 산방현(山房縣)이 존재하고 있었다. 산방현 치소(治所)의 위치는 산방산 서쪽 일대로 구전되고 있다. 산방현 당시 이 일대에는 산방현 치소가 위치했던 금물촌(今勿村, 혹은 흑로촌: 현 덕수·사계일대)과 감산촌(柑山村: 화순·감산·창천 일대)이 형성되었으며, 이후에 현재의 동·서광 일대에 자단촌(自丹村)이 형성되어 이 세 마을이 오늘날 안덕면을 이루었다.

이 세 마을 중에서 금물촌은 해안가(현 사계리)와 지금의 일주도로변 덕수리 일대로 마을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덕수리는 자단리에 합쳐졌다가 1831년(순조31)에 금물촌에서 독립하여 신당리(新堂里)라 했다가 1840년(헌종6)에 덕수리로 개명되었다. 사계리도 이때부터 분리위지게 되었다. 감산촌은 18세기 후반에 화순리의 전신인 범천리 및 동수리와 감산리 상동인 통천리 등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평리는 해방 이후에 창천리에서 나누어진 마을이다. 자단촌은 19세기 중반 이후 대정현 지역에 광범위한 화전촌이 형성되면서 자단리 일대에 인구가 유입되어 동광청리, 광청리, 광평리 등의 마을이 형성되었다.¹⁸⁾

17) 21세기 역사문화아카데미강좌 자료모음집(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p. 207.

18) 21세기 역사문화아카데미강좌 자료모음집, 상계서, pp. 208-209.

과거와 현재의 안덕면 지역 리명(里名)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리명의 변경

현재의 리명	과거의 리명(속명)
감산리	통천리, 감산리
광평리	자단이, 무동이왓
대평리	난드르
덕수리	자단이, 새당
동광리	자단이, 무동이왓
사계리	자단이, 거문질
상창리	성구못
상천리	모록밭, 천망어음
서광동리	자단이, 광청리, 건곤자리
서광서리	자단이, 광청리, 영밭동내
창천리	창고내
화순리	벗내, 골물

자료: 김용하(1991), 전계서, p. 46. 재인용.

Ⅲ. 지명의 분포

1. 지명의 유형별 분류

지명은 지형·지물(地物) 혹은 주위의 환경 등과 연관되어 명명되기 때문에 그 유연성(有緣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¹⁹⁾ 지명을 지은 배후에는 지리, 환경이라든가 그 지방의 특수한 여러 현상에서 어느 하나의 특징을 포착하여 일컬어지게 된 유연성을 생각할 수 있다. 땅이름을 지은 연유에는 실제 주위의 자연환경이나 지형, 지세 등의 특수성에 기인되는 바도 있고 또는 사회, 경제, 문화, 역사적 관계에 의존하기도 한다.²⁰⁾ 지명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생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명어의 소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지명의 구조는 의미의 복합체로서 합성어적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리학에서 지명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지명어가 의미의 합성어로 구성된 것과 관계없이 단순히 지명을 관찰하고 비교하여 유형을 구분한 연구가 있고, 또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2대별 한 연구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지명어의 합성어계를 형태소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²²⁾

본 연구에서는 지명유래의 분류에 있어 단어 자체에 따른 분류를 지양하고 지명의 본래 의미에 따라 크게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자연지명)과 인문환경에 관련된 지명(인문지명)으로 분류하였다.

자연지명은 지형·지세, 위치·방위, 자연물, 동·식물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19) 고혜정(1992), “제주도 지명연구: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마을을 중심으로”,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20) 강길부(1985), 『향토와 지명』, 정음사, p. 26.

21) 이원선(1998), “지명유래에서 본 자연마을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충북음성군 음성읍과 원남면을 중심으로”, 청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22) 손국자(1998), “평야지역과 산지지역 촌락지명의 비교연구: 창녕군과 청송군의 경우”,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5.

였고, 인문지명은 경제, 교통, 고사(故事), 유적·유물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별로 영역구분을 한 다음 유연성에 따른 명명기반을 참고로 지명어의 명명 요소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지명을 유형화하였다.

의미해석과 분포를 밝히기 위해 명명 요소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으나 지명어의 특성상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명의 유래가 중복될 경우에는 비교적 가까운 명명동기쪽으로 분류해 보았다. 예를 들어 ‘쌍안이물’의 경우 쌍안이(기러기);동물+물;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동물쪽으로 유형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한 지명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명명 요소에 따른 지명의 유형화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명명요소와 명명기반의 유형화²³⁾

	항목	명명기반유형화	명명요소
자연 지명	지형·지세	평지	들(드리, 드르, 병디/벵디/병두), 터, 왓
		大·小·長	대(한, 큰, 대, 캐), 소(조근-), 장(진-)
		색	-색
		地物形	~처럼 되어있다. ~처럼 보인다.
	위치·방위	상	웃, 상
		중	중, 본(本), 셋-
		하	아랫, 아릿, 알, 하
		동	셋, 동
		서	서, 셋
		남	남, 앞
		북	북, 뒷(뒤)
		내	안, 내
		외	밖, 외
		전	앞
	후	뒷	
	인접	해안(海), 산(山), 내(川) 등의 이름을 따옴	
	자연물	물	물, 수, 못, 내
		모래	모래, 모살, 몰래
		돌/바위	빌래(너럭바위), 영(바위), 작지(돌자갈)
		기타(해, 달, 흙)	月(월-), 해(햇빛), 흙(찰흙), -바람
동·식물	동물	(서식지/지형이 닮을 경우)	
	식물(숲, 나무)	꽃, 나무(낭)	
인문 지명	경제	밭·과수원	가온/과원, 위영(우영), 밭 -->주로 경작지
		논	-논
	교통	다리	다리, 드리
		길	길, 질
		포구	-포, -항
	故事	신앙(당, 절)	당(堂), 절(寺)
		풍수지리	(길흉화복/명당)
		전설/유래	~봉사한 이, 역사적인 인물, ~굽던 마을
		신구(新舊)	개척, 새(셋), 구(묵은)
	유적·유물	사장(射場)	활터자리, 활과 관련된 지명
기념비/탑/門		예) 비석거리, ~비	
기타(고인돌, 염전)		예) 권돌, 소금막	
기타		명명기반이 불확실한 지명	

23) 고혜정의 전계논문과 이원선의 전계논문에서 재인용함.

2. 지명의 유형별 분포 특징

지명의 유형분류에서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안덕면지역에 분포된 전체 528개 지명 가운데 자연지명은 316개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인문지명은 208개로 39.4%, 기타지명 4개로 0.8%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빈도율을 살펴보면, 故事(20.6%)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 지형·지세(17.2%), 동·식물(16.7%), 자연물(13.8%), 위치·방위(12.1%), 경제(10%), 교통 및 유적·유물(4.4%)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5> 지명의 유형별 분포

자연 지명 (316개)	지형·지세와 관련된 지명	91개	17.2%	감산(8.8%), 광평(7.7%), 대평(17.5%), 덕수(4.4%), 동광(7.7%), 사계(16.5%), 상창(6.6%), 상천(3.3%), 서광동(6.6%), 서광서(4.4%), 창천(6.6%), 화순(9.9%)
	위치·방위와 관련된 지명	64개	12.1%	감산(12.4%), 광평(1.6%), 대평(10.9%), 덕수(9.4%), 동광(9.4%), 사계(20.3%), 상창(9.4%), 상천(6.3%), 서광동(4.7%), 서광서(0%), 창천(4.6%), 화순(11.0%)
	자연물과 관련된 지명	73개	13.8%	감산(13.7%), 광평(6.8%), 대평(6.8%), 덕수(5.6%), 동광(8.3%), 사계(15.1%), 상창(6.8%), 상천(4.1%), 서광동(4.1%), 서광서(9.6%), 창천(6.8%), 화순(12.3%)
	동·식물과 관련된 지명	88개	16.7%	감산(9.1%), 광평(9.1%), 대평(10.2%), 덕수(9.1%), 동광(9.1%), 사계(15.9%), 상창(5.7%), 상천(4.5%), 서광동(3.4%), 서광서(4.5%), 창천(8.0%), 화순(11.4%)
인문 지명 (208개)	경제와 관련된 지명	53개	10.0%	감산(18.9%), 광평(11.3%), 대평(15.1%), 덕수(5.7%), 동광(11.2%), 사계(9.4%), 상창(3.8%), 상천(0%), 서광동(9.4%), 서광서(2.0%), 창천(3.8%), 화순(9.4%)
	교통과 관련된 지명	23개	4.4%	감산(13.1%), 광평(0%), 대평(21.7%), 덕수(8.7%), 동광(13.0%), 사계(13.0%), 상창(8.7%), 상천(0%), 서광동(0%), 서광서(4.4%), 창천(4.4%), 화순(13.0%)
	故事와 관련된 지명	109개	20.6%	감산(10.1%), 광평(10.1%), 대평(8.3), 덕수(7.4%), 동광(5.5%), 사계(17.4%), 상창(6.4%), 상천(3.7%), 서광동(4.5%), 서광서(11.0%), 창천(5.5%), 화순(10.1%)
	유적·유물과 관련된 지명	23개	4.4%	감산(17.4%), 광평(0%), 대평(4.4%), 덕수(13.0%), 동광(8.7%), 사계(21.6%), 상창(0%), 상천(0%), 서광동(0%), 서광서(4.4%), 창천(4.4%), 화순(26.1%)
기타 (4개)	명명기반이 불분명한 지명	4개	0.8%	동광(50%), 사계(50%)
계		528개	100.0%	

1) 동리별 분포 특징

(1) 감산리

감산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62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34개로 전체의 54.8%, 인문지명이 28개로 45.2%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8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8개, 자연물 관련 지명 10개, 동·식물 관련지명 8개, 경제 관련지명 10개, 교통관련지명 3개, 故事 관련지명 11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4개 등이 있다.

감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물을 비롯하여 밭·과수원과 관련된 지명으로 각각 7개가 나타나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동물과 관련된 지명 6개,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 5개 순으로 나타난다. 논과 관련된 지명도 3개 분포되어 있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 지명과 함께 감산리에서도 논농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과 관련된 지명도 1개 나타나는데, 고인돌은 고대인의 무덤으로서 고인돌 축조에는 많은 기술자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고인돌의 분포는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²⁴⁾

감산리의 설촌은 1580년(선조 18) 고씨의 선조가 ‘묵은터’에 정착하면서 부터로 추정되며, 이 무렵 ‘통물동네’에 유씨가 들어와 살면서 고씨의 감산과 유씨의 통천 두 마을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1730년대에 ‘장기터’에 귀양와 살았던 서제 임선생의 유희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조 대정현의 행정치소이기도 한 감산리는 1939년에 면사무소가 화순리로 옮겨가기 전까지 안덕면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²⁵⁾

24) 감산리(2002), 『감산향토지』, p. 118.

25)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固有地名』, 남제주군청, p. 617.

<표6> 감산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34)	지형·지세 (8)	평지	골왓, 뺑디가름	2
		대·소·장	대두왓(대두전), 한밭(大田)	2
		색	흰돌머리(白石)	1
		地物形	바닥밭(基田), 사드랫목, 층난밭	3
	위치·방위 (8)	상		
		중		
		하		
		동		
		서	셋소	1
		남	남반내(남밭내)	1
		북		
		내	안골	1
		외		
		전	앞내, 앞뿔런이	2
	후			
	인접	문어귀밭, 통물동, 박수왓	3	
	자연물 (10)	물	각시물, 안덕계곡, 도고샘, 고래소, 박수, 통물, 황개물	7
		모래		
		돌/바위	비진기정, 장군석	2
		기타(해, 달, 흙)	월라봉	1
동·식물 (8)	동물	쌍안이물, 고맹이소, 말왓(斗田), 말어리왓, 뱀복	6	
	식물(숲, 나무)	대기, 비작골	2	
인문지명 (28)	경제 (10)	밭·과수원	강제왓, 너븐밭, 대천밭, 못밭, 강당장우영, 강풍원우영, 안평상우영	7
		논	구명밭, 멧밭, 셋귀정답	3
	교통 (3)	다리	조순다리	1
		길	말머릿도, 말질(공물개, 공마로)	2
		포구		
	故事 (11)	신앙(당, 절)	남당동, 당의터	2
		풍수지리	광택이 동산, 북동산, 양재소	3
		전설/유래	강동이터, 동녕밭, 망동산, 수경이왓, 저승문	5
		신구(新舊)	묵은터동(陳基洞)	1
	유적·유물 (4)	사장(射場)	솔대왓	1
		기념비/비석/탑	답단이, 서제임선생적거유허비	2
		기타	권돌	1
	기타			
계			62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2) 광평리

광평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38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21개로 전체의 55.3%, 인문지명이 17개로 44.7%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7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1개, 자연물 관련 지명 5개, 동·식물 관련지명 8개, 경제 관련지명 6개, 故事 관련지명 11개 등이며, 교통과 유적·유물 관련지명은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평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10개가 나타나 전체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밭·과수원과 관련된 지명 6개, 동·식물 및 평지와 관련된 지명이 각각 4개로 나타났다. 특히 평지와 관련된 지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광평리의 옛지명이 너븐들에서 비롯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논과 교통 관련지명, 풍수지리와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광평리는 조선시대에 목장과 화전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해 있었다. 이 마을의 설촌은 지금부터 200여년 전 현재의 마을 동쪽 '조가위'에 조씨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후 '마통어귀'와 '감나무', '모살목' 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70여 세대를 이루었는데 1948년 4·3 사건때 완전 폐동되었다가, 1963년 재건 정책에 따라 다시 마을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⁶⁾

26) 남제주군(1995), 『우리 固有地名由來集』, 남제주군청.

<표7> 광평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21)	지형·지세 (7)	평지	너븐들(광평리), 거승지, 호준이병디, 멀통여개	4	
		대·소·장 색			
		地物形	가막세왓, 곱세왓, 팽풍소	3	
	위치·방위 (1)	상	웃물	1	
		중			
		하			
		동			
		서			
		남			
		북			
		내			
		외			
	자연물 (5)	물	담단물(담단물), 몸튼물	2	
		모래			
		돌/바위	돌문(석문)	1	
		기타(해, 달, 흙)	벵남동네, 친흑굴(친흑곶)	2	
		동물	고냉이수, 마통동(馬桶洞), 배염내, 쇠죽은밭	4	
	동·식물 (8)	식물(숲, 나무)	감시남케, 강남물, 서남동산, 감자왓	4	
		경계 (6)	밭·과수원	영화왓, 멀왓, 차푸시밭, 한천이밭, 터맹이밭, 복수리왓	6
	인문지명 (17)	교통 (0)	논		
			다리		
길 포구					
故事 (11)		신앙(당, 절)	곱당괘	1	
		풍수지리			
		전설/유래	고백이동산, 고장친밭, 등목이동산, 모살목, 조가동, 조근대비약, 양호네밭, 행기소, 솟군동산, 왕이피	10	
		신구(新舊)			
유적·유물 (0)		사장(射場)			
		기념비/비석/탑			
		기타(고인돌, 엽전)			
기타					
계			38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3) 대평리

대평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60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37개로 전체의 61.7%, 인문지명이 23개로 38.3%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16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7개, 자연물 관련지명 5개, 동·식물 관련지명 9개, 경제 관련지명 8개, 교통 관련지명 5개, 故事 관련지명 9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1개 등이 있다.

대평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지물형 지명으로 7개가 나타나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동물 및 신앙 관련지명이 각각 5개, 식물을 비롯하여 밭·과수원, 논 관련지명이 각각 4개 분포되어 있다. 평지와 관련된 지명도 3개 나타났다. 평지관련지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대평리의 옛지명인 난드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물과 관련된 지명이 2개 나타나는데, 논과 관련된 지명과 함께 대평리에서 논농사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통과 관련하여, 포구와 관련된 지명이 1개 분포되는데, 대평리가 해안에 입지하여 어업도 더불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평리는 본래 '열리' 또는 '예래리'에 속하였으며, 설촌은 지금부터 약250년 전에 양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조때 창천리에서 분리되어 '창천리 2구'로 불리다가, 해방 이후 대평리라 칭하였다. 분리의유는 외국의 배가 포구 가운데 하나인 '당캐'에 자주 드나드니 그 치닥거리가 귀찮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마을주민들은 평소에 대평리를 광활하면서 넓은 들판에 자리잡았다하여 '큰드르' 또는 '난드르'라고 불렀다.²⁷⁾

27)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601.

<표8> 대평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37)	지형·지세 (16)	평지	난드르(대평리), 가문다리, 기금	3
		대·소·장	진모루, 큰새왓, 한밭	3
		색	검은덕, 흰덕, 흰돌머리	3
		地物形	농패, 마궁굴, 석굴, 애기업개돌, 질매륙, 홀에미덕, 태똥은돌	7
	위치·방위 (7)	상	웃동네	1
		중		
		하	알동네(모살왓)	1
		동	동동(東洞)	1
		서		
		남		
		북		
		내		
		외		
		전	앞마궁굴, 앞벌랭이	2
		후		
	자연물 (5)	인접	한전동, 캣담밭	2
		물	넷동네, 박수	2
		모래		
		돌/바위	비진기정, 썩은빌레	2
	동·식물 (9)	기타(해, 달, 흙)	햇모루 중앙도서관	1
		동물	고냉이물통, 고래수, 꿩망동산, 소기왓, 오조개	5
		식물(숲, 나무)	갈래수, 갈오름(갈악), 대왓기정, 밤남이괘	4
	인문지명 (23)	경제 (8)	발·과수원	모르왓, 돛빙이왓, 넓은밭, 남백이밭
논			당큼논, 막은굴논, 모랏논, 저수지논	4
교통 (5)		다리	조순다리	1
		길	물길, 쉼목, 개나모루	3
		포구	당캐(唐浦, 대평항)	1
故事 (9)		신앙(당, 절)	당밭, 미륵굴, 할망물, 포젯단, 당할맹이	5
		풍수지리	금장지	1
		전설/유래	선비기돌, 장수얏은돌, 저승문(저승도)	3
		신구(新舊)		
유적·유물 (1)		사장(射場)		
		기념비/비석/탑/門	성문(城門)	1
	기타(고인돌, 염진)			
기타				
계			60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4) 덕수리

덕수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38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22개로 전체의 57.9%, 인문지명이 16개로 42.1%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4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6개, 자연물 관련 지명 4개, 동·식물 관련지명 8개, 경제 관련지명 3개, 교통 관련지명 2개, 故事 관련지명 8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3개 등이 있다.

덕수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식물과 관련된 지명으로 6개가 나타나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 4개, 지물형 및 밭·과수원과 관련된 지명이 각각 3개 순으로 나타났다. 논과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아 논농사보다 밭·과수원이 주요 경제활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인돌과 관련된 지명이 1개 수집되었다.

신당, 광영당 등 신앙과 관련한 지명이 2개 분포되어 있는데, 덕수리의 옛지명인 신당(새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덕수리는 사계리, 동·서광리, 상천리, 광평리와 합쳐 1608년경부터 자단리(紫丹里)에 속해 있다가 하동을 분리하여 1831년경에 새당으로 부르게 되었다. 1652년경에 속칭 ‘곳바구리’라는 곳에 김해김씨의 선조가 들어온 후 문·이·양씨의 조상들이 들어와서 나라에 바칠 소들을 치며 살았고, 200여년 전 상동(지금의 도련동)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1842년경부터 ‘덕수리’로 개칭되었으며, 설촌 초기부터 공예 기능공들이 유입되어 농기구의 일종인 ‘보습’을 제작하는 ‘토블미’ 혹은 ‘청탁블미’에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부업형태로 발전하여 주민의 생활근간이 되기도 하였다.²⁸⁾

28)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48.

<표9> 덕수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23)	지형·지세 (4)	평지			
		대·소·장	장굴	1	
		색 地物形	고분밭, 곳바구리, 형제동산	3	
	위치·방위 (6)	상	웃굴왓	1	
		중			
		하			
		동	동동(東洞)	1	
		서	서동(西洞)	1	
		남			
		북			
		내			
		외			
		전	앞굴왓	1	
	후				
	인접	군물왓들, 도이뭇동(도련동)	2		
	자연물 (4)	물	도로뭇, 군물	2	
		모래			
		돌/바위	돌동산	1	
		기타(해, 달, 흙)	바름잔밭	1	
	동·식물 (8)	동물	평망동산, 보염동산	2	
		식물(숲, 나무)	개남밭, 무남밭, 원남밭, 차남밭, 큰남밭, 외소랑목	6	
	인문지명 (15)	경계 (3)	밭·과수원	좁소리왓, 무등이왓, 푸는채왓	3
			논		
교통 (2)		다리			
		길	말머릿도, 새난질	2	
		포구			
故事 (8)		신앙(당, 절)	신당(新堂, 덕수리), 광영당	2	
		풍수지리			
		전설/유래	집골왓, 장씨동산, 홍알망동산, 상뒤동산	4	
		신구(新舊)	셋동네(日新洞), 묵은새동네	2	
유적·유물 (3)		사장(射場)	사장밭	1	
		기념비/비석/탑/門	효자현재옥비	1	
		기타(고인돌, 엽전)	괘아진동산	1	
기타					
계				38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5) 동광리

동광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46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27개로 전체의 58.7%, 인문지명이 17개로 37.0%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7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6개, 자연물 관련 지명 6개, 동·식물 관련지명 8개, 경제 관련지명 6개, 교통 관련지명 3개, 故事 관련지명 6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2개, 기타 지명 2개 등이 있다.

동광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밭·과수원과 관련된 지명으로 6개가 나타나 전체의 1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식물과 관련된 지명 5개, 지물형 및 인접, 물과 관련된 지명이 각각 4개, 동물관련 지명 3개,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 3개 순으로 나타났다.

논과 관련된 지명은 보이지 않으며, 밭·과수원과 관련된 지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활동이 주로 밭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광리의 옛지명인 무동이왓/무동동(舞童洞)은 ‘춤을 추는 어린이(舞童)를 닮았다’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설촌유래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360여년 전 만수동 지역에 임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룬 후 1670년대에 마전동 지역으로 분산 이주하여 취락이 2개소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자단리에 속했다가 한때 광청리로 불린 때도 있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동쪽에 있는 광청리란 뜻으로 동광리라 부르게 되었다.²⁹⁾

이 마을은 서부 중산간 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산남과 산북을 잇는 지름길이 닦여 있어서 일찍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29)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69.

<표10> 동광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27)	지형·지세 (7)	평지	병디왓	1
		대·소·장	큰너래	1
		색	붉은밭	1
		地物形	거린오름, 무동동(동광리), 배부른동산, 숨비나리	4
	위치·방위 (6)	상		
		중		
		하		
		동		
		서	서털	1
		남		
		북		
	자연물 (6)	내		
		외		
		전	앞내	1
	동·식물 (8)	후		
		인접	무동이왓, 마전동, 원물오름(원수악), 함박동	4
		물	넛도, 벌근못, 새못, 오여물	4
		모래		
	인문지명 (17)	경계 (6)	돌/바위	고고리암, 작지걸음
기타(해, 달, 흙)				
교통 (3)		동물	무악(戊岳, 개오름), 돌오름, 말통목이	3
		식물(숲, 나무)	거새왓, 돛방낭구석, 삼밭구석, 새오리동산, 볼래낭도루	5
기타 (2)	발·과수원	하온밭, 설왓, 생트리왓, 너백이왓, 각시된밭, 양잠단지	6	
		논		
	다	다리	돌다리	1
		길	단장모르, 육커리	2
		포구		
	故	신앙(당, 절)	당오름(당악), 이베장동산	2
풍수지리		영덕앉은밭	1	
전설/유래		원물, 조수개, 양챙이옛	3	
유적·유물 (2)	신구(新舊)			
	사장(射場)	중통굴, 활손동산	2	
	기념비/비석/탑/門			
기타 (2)	기타(고인돌, 엽전)			
	단장, 밝은오름(明岳)	2		
계			46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6) 사계리

사계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87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53개로 전체의 61.0%, 인문지명이 32개로 36.8%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15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13개, 자연물 관련지명 11개, 동·식물 관련지명 14개, 경제 관련지명 5개, 교통관련지명 3개, 故事 관련지명 19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5개, 기타 지명 2개 등이 있다.

사계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10개가 나타나 전체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지물형과 관련된 지명 8개, 동·식물 및 신앙과 관련된 지명 7개, 대·소·장과 관련된 지명 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물과 관련된 지명이 4개, 논 및 포구와 관련된 지명이 각각 1개이다. 소금막이라는 지명을 통하여 해안가에 인접한 사계리에서 예전에 염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념비와 관련된 지명도 다른 지역에서보다 많은 3개나 나타났다.

이 마을은 본래 사계리, 덕수리, 동·서광리를 포함하는 자단리(紫丹里)에 속했다가 분리되어 금물로리(今勿路里), 거물로(巨物路) 등으로 불리웠다. 구전에 의하면 사계리에 대정향교가 있어 선비들의 왕래가 잦았는데 도둑들이 길목을 지키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돈과 귀중품을 강탈하는 일을 일삼았다하여 거물로(巨物路)로 불리워지다가 거문길로 변형되었다. 사계리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주변에 깨끗한 모래와 시냇물을 비유하여 사계리로 바꾸었다는 설과 이 마을을 맨처음 설촌한 이가 김(金)씨임을 잊지 않으려는 뜻으로 유학의 거두 김장생(金長生)의 호를 따 사계(沙溪)라 이름지었다는 설이 있다.³⁰⁾

30)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26.

<표11> 사계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53)	지형·지세 (15)	평지			
		대·소·장	대전동, 생이물, 진동산, 큰가름, 큰물, 한못	6	
		색	청밭	1	
		地物形	곱은개, 형제섬, 다리논골, 배릿돌안진밭, 백지장, 산방산, 콧대머리, 황우치	8	
	위치·방위 (13)	상	웃정물, 웃콥남밭, 웃거문질	3	
		중			
		하	알드르, 알정물	2	
		동			
		서			
		남	남창도로	1	
		북			
		내			
		외	날콥구석	1	
		전	앞원	1	
	후				
	자연물 (11)	인접	당뒤, 용해동, 큰물동네, 산방동, 양재물	5	
		물	군물, 넘나물, 산물난밭, 선내	4	
		모래	모살개	1	
		돌/바위	남대기빌레, 빌레원, 삼거림빌레, 얼쿠니돌동산, 쫘물빌레	5	
	동·식물 (14)	기타(해, 달, 흙)	보름잔밭	1	
		동물	구룡이, 매모루동산, 단산(바꿈지오름), 붕어못, 볼락여, 용머리, 쥐내빨	7	
	인문지명 (32)	경계 (5)	식물(숲, 나무)	고장나무, 굴개낭목, 닥밭, 소남밭, 속밭, 왕보리왓, 칩골동산	7
			밭·과수원	강산이왓, 고개왓, 남선밭, 썸이왓	4
교통 (3)		논	조물이물	1	
		다리	망다리	1	
		길	거물(문)질(사계리)	1	
		포구	토기포구	1	
故事 (19)		신앙(당, 절)	광정당, 공자묘, 당머리, 당물, 신맛이동산, 절터왓, 봉승묘터	7	
		풍수지리	거옥대개	1	
		전설/유래	고가물, 불칸이맹이, 불칸터, 산방굴(산방덕), 설콥, 여배과혼여, 유생원동산 절잔개, 토끼동(토기동), 사계동산	10	
		신구(新舊)	새물통	1	
		사장(射場)	송죽동	1	
유적·유물 (5)		기념비/비석/탑/門	송죽동	1	
		기타(고인돌, 염전)	비석거리, 연디목, 하멜표류기념비	3	
		기타	소금막	1	
기타 (2)			군여, 다섯무덤	2	
계				87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7) 상창리

상창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33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22개로 전체의 66.7%, 인문지명이 11개로 33.3%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6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6개, 자연물 관련 지명 5개, 동·식물 관련지명 5개, 경제 관련지명 2개, 교통 관련지명 2개, 故事 관련지명 7개 등이 있으며, 유적·유물과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창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지물형과 관련된 지명으로 5개가 나타나 전체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 4개, 식물 및 신앙과 관련된 지명이 각각 3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논, 풍수지리, 신구, 유적·유물, 모래, 대·소·장, 색, 방위와 관련된 지명은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창리의 옛 지명인 성구못은 구전에 의하면 약 150년 전에 이 마을에 들른 한 풍수사가 이곳에 연못을 보고 그 형태가 마치 거북이 모양과 같다고 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과 이 마을 전체가 암반으로 덮여 있는데 마치 거북이 등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한다. 마을에 연못이 세 개나 있어 '웃성구못', '동성구못', '서성구못', 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상창리는 본래 '창천리'에 속해 있으면서, '웃창고내'라고 불리웠는데 1900년에 '하창리' 즉 '창천리'와 '상창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¹⁾

31)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87.

<표12> 상창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22)	지형·지세 (6)	평지	굴음탈	1	
		대·소·장 색			
		地物形	감태동산, 병악(並岳), 진군을이(進軍乙伊), 풍랑굴, 괴동산	5	
	위치·방위 (6)	상	옷창고대(상창리), 옷성구못	2	
		중	셋성구못	1	
		하	알성구못	1	
		동			
		서			
		남			
		북			
		내			
		외			
		전			
	후				
	자연물 (5)	인접	쇠물동(우수동), 신남동	2	
		물	통천, 원예물	2	
		모래			
		돌/바위	돌혹밭	1	
	동·식물 (5)	기타(해, 달, 흙)	보름이(우보름), 하운밭(하원밭)	2	
		동물	성구못, 사두형(巳頭形)	2	
	인문지명 (11)	경계 (2)	식물(숲, 나무)	피차남, 신남밭, 죽생동(대남도)	3
			밭·과수원	가남밭, 한수방올래	2
교통 (2)		논			
		다리			
		길	모루жат도, 김이방도	2	
故事 (7)		포구			
		신앙(당, 절)	당아진밭, 산재구석, 재무근동산	3	
		풍수지리			
		전설/유래	고승목, 허씨뱅디, 득수밭, 목재동산	4	
유적·유물 (0)		신구(新舊)			
		사장(射場)			
	기념비/비석/탑				
기타	기타(고인돌, 엽전)				
	계		33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8) 상천리

상천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18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14개로 전체의 77.8%, 인문지명이 4개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3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4개, 자연물 관련 지명 3개, 동·식물 관련지명 4개, 故事 관련지명 4개이며, 경제와 교통, 유적·유물 관련지명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천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3개가 나타나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평지, 동물, 식물과 관련된 지명이 각각 2개, 대·소·장, 물 등과 관련된 지명도 1개 나타났다. 반면에 밭·과수원 및 논과 관련된 경제 관련지명은 분포되지 않았다.

상천리는 해발 400m가 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규모에 비하여 거주 인구는 안덕면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또한 인문지명에 비하여 자연지명이 많은 편이며, 특히 경제관련 지명은 거의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천리의 옛지명인 모록밭은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 흰 사슴이 ‘모록계’에 와서 새끼를 낳아 치므로 이에 연유한 이름이라고 한다. 설촌시기부터 주로 화전(火田)을 일구면서 생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마을이 커지면서 창천리에서 합리(合里)하려 했으나 주민이 반대하면서 독립된 마을을 지키려고 이름을 ‘백록리’라고 하다가 ‘창고내’ 위쪽에 있다고 하여 상천리로 바뀌 현재에 불리워지고 있다.³²⁾

32)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81.

<표13> 상천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14)	지형·지세 (3)	평지	거미홀, 지계풀	2
		대·소·장	큰빻대기	1
		색		
		地物形		
	위치·방위 (4)	상		
		중	중동네	1
		하	알동네	1
		동	동동네	1
		서		
		남		
		북		
		내		
		외		
		전		
	후			
	인접	통물동산	1	
	자연물 (3)	물	올래트물	1
		모래		
		돌/바위	돌오름(석악)	1
기타(해, 달, 흙)		하늬보기	1	
동·식물 (4)	동물	거물, 용아리오름(영아리오름)	2	
	식물(숲, 나무)	비지남물, 차남동산	2	
인문지명 (4)	경계 (0)	밭·과수원		
		논		
	교통 (0)	다리		
		길		
		포구		
	故事 (4)	신앙(당, 절)		
		풍수지리	천망동(켓망어음)	1
		전설/유래	모록밭(상천리), 문덕괘(괘), 장막동산	3
	유적·유물 (0)	신구(新舊)		
		사장(射場)		
기념비/비석/탑/門				
기타	기타(고인돌, 염전)			
계			18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9) 서광동리

서광동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25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15개로 전체의 60%, 인문지명이 10개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6개, 위치·방위 관 지명 3개, 자연물 관련 지명 3개, 동·식물 관련지명 3개, 경제 관련지명 5개, 故事 관련지명 5개이며, 교통 및 유적·유물 관련지명은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광동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밭·과수원을 비롯하여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각각 5개가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대·소·장, 지물형과 관련된 지명 3개, 인접, 물, 식물과 관련된 지명 2개 순으로 나타난다. 교통, 유적·유물, 논, 평지와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접한 서광서리에 비하여 밭·과수원 관련지명이 많이 분포하여 서광동리 지역에서 밭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지명에서 자연지명이 15개, 인문지명이 10개 나타나, 자연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광동리의 옛이름은 건곤동이다. 옆 마을인 대정골에서 보았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연유한 이름이 건곤자리(건곤동)이다. 1936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면정편의상(面政便宜上) 1, 2구로 분리되었으며, 이 마을은 1구였다.

지난 1948년 4·3사건으로 인해 폐동되었다가 복구되었다. 광청리를 구성하는 한 마을이었는데, 1963년 서광리를 지금의 서광동리, 서광서리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³⁾

33)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63.

<표14> 서광동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15)	지형·지세 (6)	평지		
		대·소·장	솔랑못, 진덴밭, 큰도왓	3
		색		
	위치·방위 (3)	地物形	움텅밭, 곱덴밭, 쾌성이굴	3
		상		
		중		
		하		
		동		
		서		
		남		
		북		
		내		
		외		
		전		
		후	뒷세물	1
인접	사장밭물, 소낭못동	2		
자연물 (3)	물	소낭못, 단장밭내	2	
	모래			
	돌/바위	고는털빌레	1	
동·식물 (3)	기타(해, 달, 흙)			
	동물	오로콤포발	1	
인문지명 (10)	경계 (5)	식물(숲, 나무)	만죽동, 안태술	2
		밭·과수원	가매왓, 물핑밭, 도용남밭, 왜그릇밭, 내고랑밭	5
	교통 (0)	논		
		다리		
		길		
	故事 (5)	포구		
		신양(당, 절)		
		풍수지리		
		전설/유래	건곤동(서광동리), 불컨터, 원샘이왓, 망수기, 소경밭	5
	유적·유물 (0)	신구(新舊)		
		사장(射場)		
		기념비/비석/탑		
	기타	기타(고인돌, 염전)		
		계		25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10) 서광서리

서광서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30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이 각각 15개를 차지하여,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4개, 자연물 관련지명 7개, 동·식물 관련지명 4개, 경제 관련지명 1개, 교통 관련지명 1개, 故事 관련지명 12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1개이며, 위치·방위와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광서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9개가 나타나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물과 관련된 지명 5개, 풍수지리와 관련된 지명 3개, 지물형 및 동·식물과 관련된 지명이 각각 2개 나타난다. 반면에 논, 신앙, 신구와 관련된 지명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광서리의 옛지명은 자단리이다. 밝은오름(明岳)의 토질이 적토인데 이 마을이 바로 그 오름 기슭에 자리잡았다하여 연유한 이름이 자단리이다.

조선조 태종2년(1402년)에 제주, 대정, 정의 삼군제를 실시할 당시 대정군의 소재지가 서광리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훨씬 그 이전으로 보인다. 1917년에 면사무소가 감산리로 옮겨졌으며, 1960년대 서광동·서리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³⁴⁾

34)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60.

<표15> 서광서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15)	지형·지세 (4)	평지	광수밭	1
		대·소·장		
		색	자단리(紫丹里, 서광서리)	1
		地物形	광해악(넙개오름), 엉밭	2
	위치·방위 (0)	상		
		중		
		하		
		동		
		서		
		남		
		북		
		내		
		외		
		전		
	후			
	인접			
	자연물 (7)	물	넙개물, 다랑못, 당나못, 동산물, 큰돈내	5
		모래		
		돌/바위		
기타(해, 담, 흙)		차냇군, 해나머들	2	
동·식물 (4)	동물	매아진동산, 사수동(蛇首洞)	2	
	식물(숲, 나무)	남송악, 도랑곶	2	
인문지명 (15)	경제 (1)	밭·과수원	모루왓	1
		논		
	교통 (1)	다리		
		길	한질새왓	1
		포구		
	故事 (12)	신앙(당, 절)		
		풍수지리	생기동산, 응전동(應田洞), 진보동(進寶洞)	3
		전설/유래	개다리왓, 관전동(官田洞), 중통목동산, 망수기, 망동산, 백개동산, 석수왓, 호패물, 깃발동산	9
		신구(新舊)		
	유적·유물 (1)	사장(射場)	사장밭	1
기념비/비석/탑				
기타(고인돌, 염전)				
기타				
계			30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11) 창천리

창천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31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21개로 전체의 67.7%, 인문지명이 10개로 32.3%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6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3개, 자연물 관련 지명 5개, 동·식물 관련지명 7개, 경제 관련지명 2개, 교통 관련지명 1개, 故事 관련지명 6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1개 등이 있다.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창천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물을 비롯하여 식물, 신앙과 관련된 지명으로 각각 4개가 나타나 전체의 1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대·소·장, 지물형, 인접, 동물과 관련된 지명 3개, 밭·과수원,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 2개 순으로 높게 분포되고 있다. 돌/바위, 다리, 사장과 관련된 지명도 1개씩 보인다. 반면에 논, 길/포구, 풍수지리, 기념비 등과 관련된 지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창천리에 물 지명이 많이 분포된 것은 창천리가 옛부터 ‘창고내’라는 하천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천리는 마을안에 있는 내(川)에 창고처럼 생긴 암굴이 있다하여 ‘창고천리’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1914년 일제 강점기 때에 토지세부측량이 실시되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창천리로 바뀌 부른 게 오늘에 이르고 있다.³⁵⁾

35)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95.

<표16> 창천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21)	지형·지세 (6)	평지			
		대·소·장	큰가름, 크남밭동네, 큰가스랏동네	3	
		색 地物形	가마소, 군산, 빗떡밭	3	
	위치·방위 (3)	상			
		중			
		하			
		동			
		서			
		남			
		북			
		내			
		외			
		전			
	후				
	인접		넛바람, 물밭동(水田洞), 사장밭동	3	
	자연물 (5)	물		창고내(창천리), 영구물, 통물, 쇠구 정물	4
모래					
돌/바위			돌밭	1	
기타(해, 달, 흙)					
동·식물 (7)	동물		뱀바리동(蛇盤洞), 오뺨물, 재미골	3	
	식물(숲, 나무)		굴거리낭동산, 닥밭소, 머구낭동산, 감산(신산오름)	4	
인문지명 (10)	경제 (2)	밭·과수원	토목이왓, 서툼밭	2	
		논			
	교통 (1)	다리	창천교	1	
		길			
		포구			
	故事 (6)	신앙(당, 절)	남당, 닥밭당, 친밭당, 마애문	4	
		풍수지리			
		전설/유래	불큰터, 토산동(토깃동네)	2	
		신구(新舊)			
	유적·유물 (1)	사장(射場)	사장밭	1	
기념비/비석/탑/門					
기타(고인돌, 염전)					
기타					
계			31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12) 화순리

화순리에 분포된 지명의 수는 60개이다. 이 가운데 자연지명이 35개로 전체의 58.3%, 인문지명이 25개로 41.7%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지명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지형·지세 관련지명 9개, 위치·방위 관련지명 7개, 자연물 관련 지명 9개, 동·식물 관련지명 10개, 경제 관련지명 5개, 교통 관련지명 3개, 故事 관련지명 11개, 유적·유물 관련지명 6개 등이 있다.

화순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명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8개가 나타나 전체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동물과 관련된 지명 7개, 돌/바위와 관련된 지명 5개, 밭·과수원 관련지명 4개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해안지역인 화순리에서 갯돌이라고 하는 고인돌과 관련된 지명이 1개, 염전과 관련하여 소금막이라는 지명이 수집되었다.

논과 관련된 지명도 1개 분포되어 있다. 화순리의 옛 지명인 번내는 ‘벗내’의 변형으로 냇가에 논이 있어 벼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포구관련지명이 2개나 나타났다.

설촌유래에 대해서는 신라 3대 유리왕때(서기24년) 양(梁)왕자가 거주하였다는 설과, 고려조 말기 중국의 명(明) 조정이 원나라의 왕족 일행을 제주섬으로 적거시켰는데 그때 들어온 양양태자(梁梁太子)가 살던 집터인에서 연유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150년 전 ‘동수리(洞水里)’와 ‘번내’를 합쳐 화순리(和順里)라 하였다. 본래 ‘산방촌(山房村)’이라 불리웠고 그 후 마을이 둘로 나뉘어져 한 쪽은 ‘동수리(洞水里)’, 다른 쪽은 ‘범천(犯川)’이라 했는데 다시 ‘범천’을 ‘범질천’이라 고쳐 부른 것이 나중에 ‘벗내’에서 ‘번내’로 바뀌었다고 한다.³⁶⁾

36) 남제주군(1996), 전계서, p. 518.

<표17> 화순리 지명분포

	항목	명명기반	지명	계
자연지명 (35)	지형·지세 (9)	평지	배납드르	1
		대·소·장	큰물, 진밭, 큰터왓	3
		색	황개천, 검은여, 노랑여	3
		地物形	굴렁밭, 고래소	2
	위치·방위 (7)	상	웃동네(곤물동), 상약수	2
		중	중동네	1
		하	알동네(하동), 하강수	2
		동	동동(동동네)	1
		서	섯동네(서동)	1
		남		
		북		
		내		
		외		
		전		
	후			
	인접			
	자연물 (9)	물	산받은물, 저수(돛물, 녹남물), 펄물, 함박이물	4
		모래		
		돌/바위	도채비빌레, 선배이돌, 유반석, 무반석, 장군석	5
		기타(해, 달, 흙)		
동·식물 (10)	동물	개뻥대기, 까막이돌, 명알목소, 어은동, 오리소, 오죽돌, 와막이돌	7	
	식물(숲, 나무)	번대(화순리), 굴개남밭, 칠남밭	3	
인문지명 (25)	경제 (5)	밭·과수원	가원이, 개남밭, 장서방우영, 황선달밭	4
		논	호곰밭	1
	교통 (3)	다리		
		길	장고도로	1
		포구	범질포, 화순항	2
	故事 (11)	신앙(당, 절)	원당밭, 포젯동산, 화강사	3
		풍수지리		
		전설/유래	논끈오름, 보막은소, 사근다리동산, 신산동산, 양왕자터, 팔풍이목, 호병삼이, 대필막거리	8
	유적·유물 (6)	신구(新舊)		
		사장(射場)	논오름, 솔대왓	2
		기념비/비석/탑/門	김광중개척기념비위, 김파총공덕비	2
기타(교인돌, 염전)		권돌, 소금막	2	
기타				
계			60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표18> 각 동리별 지명유형 분포

항목		감	광	대	덕	동	사	상	상	서	서	창	화	계	
		산	평	평	수	광	계	창	천	광	광	동	서		순
자연 지명 (316)	지형·지세 (91)	평지	2	4	3		1		1	2		1		1	15
		대·소·장	2		3	1	1	6		1	3		3	3	23
		색	1		3		1	1				1		3	10
		地物形	3	3	7	3	4	8	5		3	2	3	2	43
	위치·방위 (64)	상		1	1	1		3	2					2	10
		중							1	1				1	3
		하			1			2	1	1				2	7
		동			1	1				1				1	4
		서	1			1	1							1	4
		남	1					1							2
		북													0
		내	1												1
		외						1							1
		전	2		2	1	1	1							7
	후									1				1	
	인접	3		2	2	4	5	2	1	2		3		24	
	자연물 (73)	물	7	2	2	2	4	4	2	1	2	5	4	4	39
		모래													1
		돌/바위	2	1	2	1	2	5	1	1	1		1	5	22
	동·식물 (88)	기타	1	2	1	1		1	2	1		2			11
		동물	6	4	5	2	3	7	2	2	1	2	3	7	44
		식물	2	4	4	6	5	7	3	2	2	2	4	3	44
		경제 (53)	밭·과수원	7	6	4	3	6	4	2		5	1	2	4
	논		3		4			1						1	9
	교통 (23)	다리	1		1		1	1					1		5
		길	2		3	2	2	1	2			1		1	14
		포구			1			1						2	4
故事 (109)		신앙	2	1	5	2	2	7	3				4	3	29
	풍수지리	3		1		1	1		1		3			10	
	전설/유래	5	10	3	4	3	10	4	3	5	9	2	8	66	
	신구(新舊)	1			2		1							4	
유적·유물 (23)	사장(射場)	1			1	2	1				1	1	2	9	
	기념비/비석	2		1	1		3						2	9	
	기타	1			1		1						2	5	
기타 (4)					2	2							4		
계 (528)		62	38	60	38	46	87	33	18	25	30	31	60	528	

*()안은 해당항목의 지명수

2) 지대별 분포 특징

지명의 지대별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표19>와 같이 해발고도가 비슷한 지대와 주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임해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로 나누어 각 지대별 지명의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임해지대는 대체로 해발 1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바다와 인접하여 어업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간지대는 임해지대와 산간지대의 중간에 위치하여 점이지대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산간지대는 해발 400m 이상의 지역으로서 주로 농업이나 목축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대별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이 다르고 취락의 분포도 구분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지명의 분포 내용을 통하여 각 지대별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할 것으로 본다.

(1) 임해지대

임해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은 감산, 대평, 사계, 창천, 화순리이다. 이 가운데 감산리는 지형도상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오늘날 직접적으로 바다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창천리의 경우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예전에 대평리와 한 마을이었을 때는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도 거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임해지대로 묶었다.

감산리는 화순리와 창천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일주도로변에는 안덕계곡이 있으며, 대체로 경사가 완만하여 감귤과 밭작물이 주요 소득원이다.

대평리는 서귀포시 하예동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해안지대와 아주 밀접하게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중심으로는 비교적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주로 시설채소와 마늘 등이 경작되고 있으며, 또한 연근해 어업의 발달로 어민소득 증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사계리는 동쪽으로 화순리와 서쪽으로 대정읍 상모리(산이수동), 북쪽으로 덕수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서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주된 경제기반은 농업, 어업 및 관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창천리는 안덕면 서쪽 끝에 위치한 마을이다. 남쪽으로 군산과 대평리, 서쪽으로 감산리, 북쪽으로 상창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일주도로변을 따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요 산업기반은 감귤과 감자 등 농업, 축산이 대부분이다.

화순리는 오늘날 안덕면사무소 소재 마을로서 안덕면의 중심지이다. 서쪽으로 산방산이, 남쪽으로 형제섬, 동쪽으로 군산이 있다. 도내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은 편리하고 항구가 있어 서남부 지역 어업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감귤, 고구마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임해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300개로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동물 및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각각 28개이다. 이어서 지물형 지명이 23개로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물 및 밭·과수원, 신앙 지명이 각각 21개로 나타났다.

특히 논 관련 지명과 포구 관련지명이 각각 9개, 4개로 나타났다. 논과 포구지명은 임해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지명으로서,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와는 구별되는 임해지대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밖에 염전과 관련하여 소금막이라는 지명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동물지명과 전설/유래 지명의 분포내용을 보면, 동물지명의 경우 감산리의 쌍안이물, 고냉이소, 말왓, 말어리왓, 뱀복대기, 비작골, 대평리의 고냉이물통, 고래수, 평망동산, 소기왓, 오조개, 사계리의 구룡이, 매모루동산, 단산(바굼지오름), 붕어못, 불락여, 용머리, 쥐내빨, 창천리의 뱀바리동, 오뺨물, 제미골, 화순리의 개뺨대기, 까막이돌, 명알목소, 어은동, 오리소, 오죽돌, 와막이돌 등이 있다.

전설/유래 지명의 경우에는 감산리의 강둥이터, 동녕밭, 망동산, 수경이왓, 저승문, 대평리의 선비기돌, 장수얏은돌, 저승문, 사계리의 고가물, 불칸이멩이, 불칸터, 산방굴(산방덕), 설쿰, 여배과혼여, 유생원동산 절잔개, 토끼동(토기동), 사계동산, 창천리의 불큰터, 토산동, 화순리의 노끈오름, 보막은소, 사근다리동산, 신산동산, 양왕자터, 팔풍이목, 호병삼이, 대필막거리 등이 있다.

지형·지세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지물형의 경우 감산리의 바닥밭,

사드렛목, 층난밭, 대평리의 농괘, 마궁굴, 석굴, 애기엿개돌, 질매톡, 홀에미덕, 태닭
은돌, 사계리의 곱은개, 형제섬, 다리논골, 배릿돌안진밭, 백지장, 산방산, 콧대머리,
황우치, 창천리의 가마소, 군산, 빗떡밭, 화순리의 굴렁밭, 고래소 등의 지명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지명에는 감산리의 각시물, 안덕계곡, 도고샘, 고래소, 박수, 통물, 황개물, 대
평리의 냇동네, 박수, 사계리의 군물, 넘나물, 산물난밭, 선내, 창천리의 창고내, 영구
물, 통물, 쇠구정물, 화순리의 산받은물, 저수, 펄물, 함박이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감산리의 고래소와 박수는 해안가 지역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지명으
로, 예전에 감산리가 바다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밖에 조순다리와 저승문 등도 감산리의 해안가 지역에 나타나는 지명이다. 창
천리의 창고내는 일명 창고천으로서 오늘날 창천리의 지명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밭·과수원 지명에는 감산리의 강제왓, 너븐밭, 대천밭, 못밭, 강당장우영, 강풍원
우영, 안평상우영, 대평리의 모르왓, 돛빙이왓, 넓은밭, 남백이밭, 사계리의 강산이왓,
고개왓, 남선밭, 샘이왓, 창천리의 토목이왓, 서툼밭, 화순리의 가원이, 개남밭, 장서
방우영, 황선달밭 등이 있다. 화순리의 가원은 과수원의 옛 지명인데, 감산리와 창
천리, 화순리 지역은 특히 주변 경관이 낮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과수원
을 많이 볼 수 있다.

신양 지명도 임해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9개 가운데
임해지대에 21개, 중간지대 5개, 산간지대 3개로 집계되었다. 감산리의 남당동, 당
의터, 대평리의 당밭, 미륵골, 할망물, 포젯단, 당할맹이, 사계리의 광정당, 공자묘,
당머리, 당물, 신맛이동산, 절터왓, 봉승묘터, 창천리의 남당, 닥밭당, 친밭당, 마애문,
화순리의 원당밭, 포젯동산, 화강사 등이 있다. 임해지대에서 특히 신양 지명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취락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간지대

중간지대는 임해지대와 산간지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점이지대로서 덕수리, 상창리, 서광동리, 서광서리가 이에 해당한다. 해발 100m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며, 주로 밭작물과 목축에 의존하고 있다. 대체로 취락은 식수확보에 유리한 못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수리는 안덕면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쪽으로 화순리, 동남쪽으로 산방산, 남쪽으로 사계리와 서쪽으로 대정읍 인성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서부산업도로와 일주도로변을 따라 긴 취락이 형성되고, 지대가 완만하여 밭작물과 감귤 등이 주요 경제 소득원이다.

상창리는 아래로 창천리와 위로 상천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를 따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이용하여 아래로는 감귤이, 위로는 감자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

서광동리는 동쪽으로 상창리, 서쪽으로 서광서리, 남쪽으로 논오름을 경계로 화순리가 자리하고, 북쪽으로는 서부산업도로변을 따라 동광리가 위치하고 있다. 넓은 초원을 활용한 목축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경제기반은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광서리는 대정읍 구억리와 광해악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서광동리와 남쪽으로 덕수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의 주된 경제기반은 농업이며, 마을공동목장이 조성되어 있고 농·목축업이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중간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126개로서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전설/유래와 관련한 지명으로 22개이다. 이어서 지물형과 식물지명이 각각 13개 나타났으며, 물 및 밭·과수원 지명도 각각 11개로 집계되었다.

중간지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전설/유래 지명에는 덕수리의 집골왓, 장씨동산, 홍알망동산, 상뒤동산, 상창리의 고승목, 허씨뱅디, 득수밭, 목재동산, 서광동리의 건곤동, 불컨터, 원샘이왓, 망수기, 소경밭, 서광서리의 개다리왓, 관전동, 망동산, 망수기, 백개동산, 석수왓, 중통목동산, 호패물, 깃발동산 등이 있다. 대체로 동산에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변 경관의 특색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물형 지명에는 덕수리의 고분밭, 곳바구리, 형제동산, 상창리의 감태동산, 병악, 진군을이, 풍랑굴, 괴동산, 서광동리의 움텅밭, 곱덴밭, 쾌성이굴, 서광서리의 광해악, 영밭 등이 있다.

식물지명의 경우, 덕수리의 개남밭, 무남밭, 원남밭, 차남밭, 큰남밭, 외소랑목, 상창리의 피차남, 신남밭, 죽생동, 서광동리의 만죽동, 안태술, 서광서리의 남송악, 도랑곶 등이 있다.

물지명의 분포내용을 보면, 덕수리의 도로못, 군물, 상창리의 통천, 원예물, 서광동리의 소낭못, 단장밭내, 서광서리의 넓개물, 다랑못, 당나못, 동산물, 큰돈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덕수리는 도로못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도이못동(도련동)이라는 지명이 있으며, 상창리의 경우도 성구못이라는 못을 중심으로 웃성구못, 셋성구못, 알성구못(성구못은 상창리의 위치·지명과 동물지명 참조) 등으로 취락이 분포되고 있다. 대체로 중간지대에서 규모가 큰 마을은 식수확보에 유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밭·과수원 지명과 관련하여 덕수리의 좁소리왓, 무등이왓, 푸는채왓, 상창리의 가남밭, 한수방울래, 서광동리의 가매왓, 물평밭, 도용남밭, 왜그릇밭, 내고랑밭, 서광서리의 모루왓 등이 있다.

근세 이후 인구증가에 따르는 개척의 진전과 생활권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취락 입지의 내륙이동을 유발하였다. 내륙입지는 해안과 산지의 접이지대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고, 자급적 경제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근세 사회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핵적 취락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중간지대의 서광리(서광동리와 서광서리)는 1910년대 면소재지가 감산리로 옮겨가기 전에 안덕면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기록은 근세 이후 취락이 내륙으로 이동하였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취락이 새롭게 형성되고, 사라지는 흔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덕수리의 셋동네(일신동)와 묵은새동네라는 지명에서도 나타난다.

(3) 산간지대

산간지대에는 광평, 동광, 상천리 등 3개 마을이 분포되어 있다. 대체로 해발 400m 이상의 고지대로서 경작지가 적고, 기후, 토지조건에 의하여 생산성도 낮아서 취락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주요 경제활동은 초지 지대를 활용한 목축업 및 임산물 채취에 의존하는 편이다.

광평리는 중산간 해발 500m 지대에 위치하며, 남제주군 내에서도 최고 지대의 마을이다. 중산간지대의 풍부한 초지자원을 활용한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광리는 서부산업도로변에 위치하여 북제주군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및 안덕면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남쪽으로 서광서리, 동쪽으로 상천리, 북쪽으로 한림읍 금악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도로변을 따라 취락이 형성되었고, 주민들은 자연적인 초지 등을 활용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상천리는 위로는 광평리와 남쪽으로는 상창리, 서쪽으로는 동광리, 서광동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 전체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풍부한 초지자원을 활용한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간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102개로서 전체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산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16개이다. 이어서 밭·과수원지명이 12개, 식물지명이 11개이다. 산간지대는 다른 임해지대와 중간지대에 비하여 지명의 수가 적게 분포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명의 수와 취락의 분포는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락이 많이 분포된 지역일수록 지명의 수도 높게 집계되었다. 물론 지대별 분류과정에서 임해지대 5개, 중간지대 4개, 산간지대 3개를 선정하였지만, 이는 그만큼 임해지대에 취락이 많이 분포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지명의 수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지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설/유래 지명의 분포내용을 보면, 광평리의 고백이동산, 고장친밭, 등목이동산, 모살목, 조가동, 조근대비약, 양호네밭, 행기소, 솟근동산, 왕이매, 동광리의 원물, 조수개, 양챙이엿, 상천리의 모록밭, 문덕계, 장막동산 등이 있다. 주변경관과 관련하여 동산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며, 솟을 구웠음을

알 수 있는 솟굴동산은 산간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지명이다.

밭·과수원 관련지명에는 광평리의 영화왓, 멀왓, 차푸시밭, 한천이밭, 터덩이밭, 북수리왓, 동광리의 하온밭, 설왓, 생트리왓, 너백이왓, 각시된밭, 양잠단지 등이 있다. 상천리의 경우, 밭·과수원 지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식물관련지명의 경우 광평리의 감시남괘, 강남물, 서남동산, 감자왓, 동광리의 거새왓, 돛방낭구석, 삼밭구석, 불래낭도루, 새오리동산, 상천리의 비지남물, 차남동산 등이 있다.

지물형지명에는 광평리의 가막세왓, 곱세왓, 펥풍소, 동광리의 거린오름, 무동동, 배부른동산, 숨비나리 등이 있다.

물과 관련된 지명의 경우 광평리의 담단물, 몸튼물, 동광리의 냇도, 벌근못, 새못, 오여물, 상천리의 올래트물 등이 있다.

평지와 관련된 지명의 경우 광평리의 너븐들, 거승지, 호준이병디, 멀통여개, 동광리의 병디왓, 상창리의 굴음탈, 상천리의 거미흠, 지계풀, 서광서리의 팡수밭 등이 있다. 너븐들은 광평리의 옛지명으로 들이 넓게 펼쳐진 지형의 특색을 반영한 것이다.



<표19> 지대별 지명 분포

		입해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계		
		사 계	화 순	대 평	감 산	창 천	소 계	덕 수	상 창	서 광 서	서 광 동	소 계	동 광	상 천	광 평		소 계	
자연 지명	지형·지세	평지		1	3	2		6		1	1		2	1	2	4	7	15
		대·소·장	6	3	3	2	3	17	1			3	4	1	1		2	23
		색	1	3	3	1		8			1		1	1			1	10
		地物形	8	2	7	3	3	23	3	5	2	3	13	4		3	7	43
	위치·방위	상	3	2	1			6	1	2			3			1	1	10
		중		1				1		1			1		1		1	3
		하	2	2	1			5		1			1		1		1	7
		동		1	1			2	1				1		1		1	4
		서		1		1		2	1				1	1			1	4
		남	1			1		2					0				0	2
		북						0					0				0	0
		내				1		1					0				0	1
외		1					1					0				0	1	
전		1		2	2		5	1				1	1			1	7	
후						0				1	1				0	1		
인접	5		2	3	3	13	2	2		2	6	4	1		5	24		
자연물	물	4	4	2	7	4	21	2	2	5	2	11	4	1	2	7	39	
	모래	1					1				0					0	1	
	돌/바위	5	5	2	2	1	15	1	1	2	1	3	2	1	1	4	22	
	기타	1		1	1		3	1	2	2		5		1	2	3	11	
동·식물	동물	7	7	5	6	3	28	2	2	2	1	7	3	2	4	9	44	
	식물	7	3	4	2	4	20	6	3	2	2	13	5	2	4	11	44	
인문 지명	경제	밭·과수원	4	4	4	7	2	21	3	2	1	5	11	6		6	12	44
		논	1	1	4	3		9					0				0	9
	교통	다리	1		1	1	1	4					0	1			1	5
		길	1	1	3	2		7	2	2	1		5	2			2	14
		포구	1	2	1			4					0				0	4
	故事	신앙	7	3	5	2	4	21	2	3			5	2		1	3	29
		풍수지리	1		1	3		5			3		3	1	1		2	10
		전설/유래	10	8	3	5	2	28	4	4	9	5	22	3	3	10	16	66
		신구(新舊)	1			1		2	2				2				0	4
	유적·유물	사장(射場)	1	2		1	1	5	1		1		2	2			2	9
		기념비/비석	3	2	1	2		8	1				1				0	9
		기타	1	2		1		4	1				1				0	5
기타						2					0	2			2	4		
소계		87	60	60	62	31		38	33	30	25		46	18	38			
계			300(56.8%)						126(23.9%)				102(19.3%)				528	

IV. 지명의 유래

1. 자연지명

1) 지형·지세

땅에 이름을 붙이는데는 땅의 모양이나 땅의 성질이 작용되기도 한다. 지형·지세에 따른 지명의 분류는 평지, 대·소·장, 색, 지물형으로 설정하여 지명의 유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평지(경작지가 아님)

지형이 비교적 편평한 곳을 말한다. 대체로 들이라고 부르며, 경작지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평지를 나타내는 제주지역어인 ‘드리, 드르’는 ‘들(野)’을 의미하며, ‘병디, 뱅디, 뱅디’도 역시 들을 뜻한다.³⁷⁾ 안덕면 지역에 분포하는 평지 관련 지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골왓(감산)	난드르(대평)	거미홀(상천)
뱅디가름	가문다리	지계폴
	기금	
너븐들(광평)		짱수밭(서광서)
거승지	병디왓(동광)	
호준이병디		배납드르(화순)
멀통여개	굴음탈(상창)	-15개

골왓은 동서로 길게 구릉이 지면서 골이 패어 있다고 하여, 뱅디가름은 벌판처럼 넓고 큰 밭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7) 고희정(1992), 전계논문.

너븐들은 광평리의 옛지명이며, 넓은 들(廣坪)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난드르리는 대평리의 옛지명이며 ‘드르’는 ‘들’의 제주 방언으로, 바닷가까지 멀리 나간 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병디왓은 벌판처럼 드넓은 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납드르는 지형지세가 배의 형태로 넓은 벌판을 이루고 있고 나무가 무성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³⁸⁾

평지 지명은 특히 대평리와 광평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 대·소·장

지형의 크기와 길이가 지명 명명에 반영되고 있는 경우이다. 제주지역어에서 한, 큰, 대는 대(大)를 의미하며, ‘조근’이 들어간 말은 소(小)를 뜻한다. 길다는 의미의 장(長)은 ‘진’이라고도 표현한다. 대·소·장 관련 지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대두왓(감산)	대전동(사계)	진텐밭(서광동)
한밭	생이물	큰도왓
	진동산	
진모루(대평)	큰가름	큰가름(창천)
큰새왓	큰물	크남밭동네
한밭	한못	큰가스랏동네
장굴(덕수)	큰빗대기(상천)	큰물(화순)
큰너궤(동광)	솔랑못(서광동)	진밭
		큰터왓

-23개

대두왓은 큰 사람의 밭이란 뜻으로 불리워지는데, 한자표기화에 의해 대두전(大頭田)이라고도 한다. 한밭은 이 일대가 아주 큰 밭이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한자표기화에 의해 드물게 대전(大田)이라고 표기한다. 진모루는 동산이 길게 이어졌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진’은 제주어에서 ‘길다(長)’을 뜻한다. 큰새왓은 제주도의 초가지붕을 덮는 띠밭이 워낙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는 띠의 제주지역어이다.

38) 남제주군(1995), 전계서.

생이물은 작은 샘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³⁹⁾

‘크다’라는 의미가 지명에 나타난 경우는 2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지형이 크거나, 마을 혹은 지역이 다른 마을 혹은 지역과 비교하여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큰 장소 일 경우이다.⁴⁰⁾

대·소·장 지명은 특히 사계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색

지명 명명이 그 색깔로써 형용하여 지어진 것이다. 색 관련 지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흰돌머리(감산)	붉은밭(동광)	황개천(화순)
		검은여
검은덕(대평)	청밭(사계)	노랑여
흰덕		
흰돌머리	자단리(서광서)	- 10개

흰돌머리는 흰돌이 많은 동산이므로, 검은덕은 마을 안에서 군산을 쳐다볼 때 중턱에 검은 바위가 선명하게 보이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붉은밭은 붉은색 스킨아(송이)에 영향을 받아서, 청밭은 본디 논인데 늘 푸른 색깔을 띠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황개천은 냇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끔 물개가 나타나 울었는데, 그 물개 색깔이 누렇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⁴¹⁾

색지명은 화순리와 대평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남제주군(1995), 전계서.

40) 고혜정(1992), 전계논문.

41) 남제주군(1996), 전계서.

(4) 지물형(사물모양과 비슷)

지형이 어떤 사물의 모양과 비슷하여, 그 사물이 지명 명명의 소재가 된 경우가
다. 지물형 관련 지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바닥밭(감산)	거린오름(동광)	풍랑굴(상창)
사드렛목	무동동	괴동산
층난밭	배부른동산	
	숨비나리	움텅밭(서광동)
가막세왓(광평)		곱넝밭
곱세왓	곱은개(사계)	괘성이굴
팽풍소	형제섬	
	다리논골	광해악(서광서)
농괘(대평)	배릿돌안진밭	영밭
마궁굴	백지장	
석굴	산방산	가마소(창천)
애기엽개돌	콧대머리	군산
질매툽	황우치	빗떡밭
홀에미덕		굴렁밭(화순)
태닭은돌	감태동산(상창)	고래소
	병악	
고분밭(덕수)	진군을이	
곳바구리		
형제동산		

-43개

바닥밭은 그 지형이 바둑판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바닥’은 바둑의 변형이
다. 층난밭은 지형이 비스듬하여 가파르게 생겨있으며 농지들이 지형에 맞추어 층층
히 형성되어 있으므로 불린다. 사드렛목은 지형이 사다리처럼 생겼으므로, 가막세왓
은 사냥총의 방아쇠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곱세왓은 곱사등이처럼 곱은
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곱세’는 곱사등이의 제주지역어이다. 팽풍소는 소(沼)
의 주변이 병풍을 두른 듯이 암벽으로 에워싸여 있다하여 붙여졌는데, ‘팽풍’은 병풍
의 제주지역어이다.

농케는 책상처럼 돌이 네모반듯하고 농(籠)뚜껑처럼 생겼으므로, 마궁굴은 이 지역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막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애기엿개들은 바위형태가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는 데서 연유하였다. 질매툽은 소의 등에 올려놓고 짐을 운반하는 길마의 턱을 닮았다 하여 붙여졌으며, 홀에미덕은 이 여의 지형지세가 마치 홀에미가 외롭게 서 있는 것 같다는데서 연유하였다.

고분밭은 지형지세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붙여졌으며, 곳바구리는 꽃바구니와 비슷하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거린오름은 오름의 정상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여 불리우고 있는데, 가지치다를 제주지역어로는 ‘거리다/거린다’라고 한다.

배부른동산은 이 동산의 지형지세가 마치 배가 분 것처럼 붕긋하다 하므로, 숨비 나리는 이 지역 일대가 분지인데 물 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간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숨비’는 물 속으로 자맥질하는 것을, <나리>는 드물게 분지를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굽은개의 바닷가는 바람막이가 되고 바닥이 평평하여 본디 자연 포구로 이용했으나 방파제를 쌓았는데 기억(ㄱ)자 형으로 구부러져 들어가 숨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릿돌안진밭은 이 곳에 벼루같이 생긴 큰 왕석이 있다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배릿돌’은 벼루의 제주지역어이다.

백지장은 백지장을 펴는 것처럼 평평하고 넓다고 하여서, 산방산은 이 산에 방처럼 생긴 굴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콧대머리는 지형지세가 마치 사람의 코처럼 생기고 높은 지대라 하여 붙여졌으며, 황우치는 황우(黃牛)의 두각(頭角)처럼 생겼다는데서 연유하였다. 감태동산은 감투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감태’는 감투의 변형이다. 진군을이는 이 일대의 지형지세가 멀리서 보면 마치 ‘병약’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가 ‘군산’을 향해 직렬로 진군하는 형태처럼 보인에서 연유하였다. 풍랑굴은 마치 배의 돛대가 풍파에 부러진 형치를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움텅밭은 밭이 안으로 패어 ‘움푹 들어갔다’하여, 곱덴밭은 마치 숲속에 숨은 듯하다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광해약은 오름의 지형지세가 납적한 게(蟹)의 형치로 보이기 때문에, 가마소는 이 소(沼) 남쪽에 가마처럼 생긴 바위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군산은 산의 모양이 군막(軍幕)과 같다고 하여, 빗땀밭은 지형이 한쪽으로

빼딱하게 기울어져 경사진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굴렁밭은 지형이 구부러져 있다 하여 붙여졌으며, 고래소는 그 모습이 멧돌을 가는 것 같다하여 유래되었다. 고래는 ‘멧돌’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⁴²⁾

지물형 지명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계리, 대평리 등 주로 해안지대에 많이 분포되고 있다.

<그림2> 지물형 지명 분포



1. 바닥밭	11. 질매록	21. 곱은개	31. 진군을이	41. 빗떡밭
2. 사드렛목	12. 홀에미덕	22. 형제섬	32. 풍랑굴	42. 굴렁밭
3. 층단밭	13. 태담은돌	23. 다리논골	33. 괴동산	43. 고래소
4. 가막세왓	14. 고분밭	24. 배릿돌안진밭	34. 움텅밭	
5. 곱세왓	15. 곳바구리	25. 백지장	35. 곱텐밭	
6. 팽풍소	16. 형제동산	26. 산방산	36. 패성이굴	
7. 농괘	17. 거린오름	27. 콧대머리	37. 광해악	
8. 마궁굴	18. 무동동	28. 황우치	38. 영밭	
9. 석굴	19. 배부른동산	29. 감태동산	39. 가마소	
10. 애기엽개돌	20. 숨비나리	30. 병악	40. 군산	

42) 남제주군(1995), 전계서.

2) 위치 · 방위

위치관계는 마을 상호 간의 관계에서 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상(윗), 중, 하(아랫, 알)의 명칭이 붙어 상호 위치를 나타내거나 내(內), 외(外), 전(前), 후(後) 등이 붙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을의 위치는 지형 · 지세 등에 따라 동서남북 등과 같은 방위가 형성되어 지명에 나타나기도 한다. 위치 · 방위 관련 지명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상

웃물(광평)	웃정물(사계)	웃창고내(상창)	
	웃쿰남밭	웃성구못	
웃동네(대평)	웃거문질		
		웃동네(화순)	
웃굴왓(덕수)		상약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0개

(2) 중

셋성구못(상창)	중동네(상천)	중동네(화순)	-3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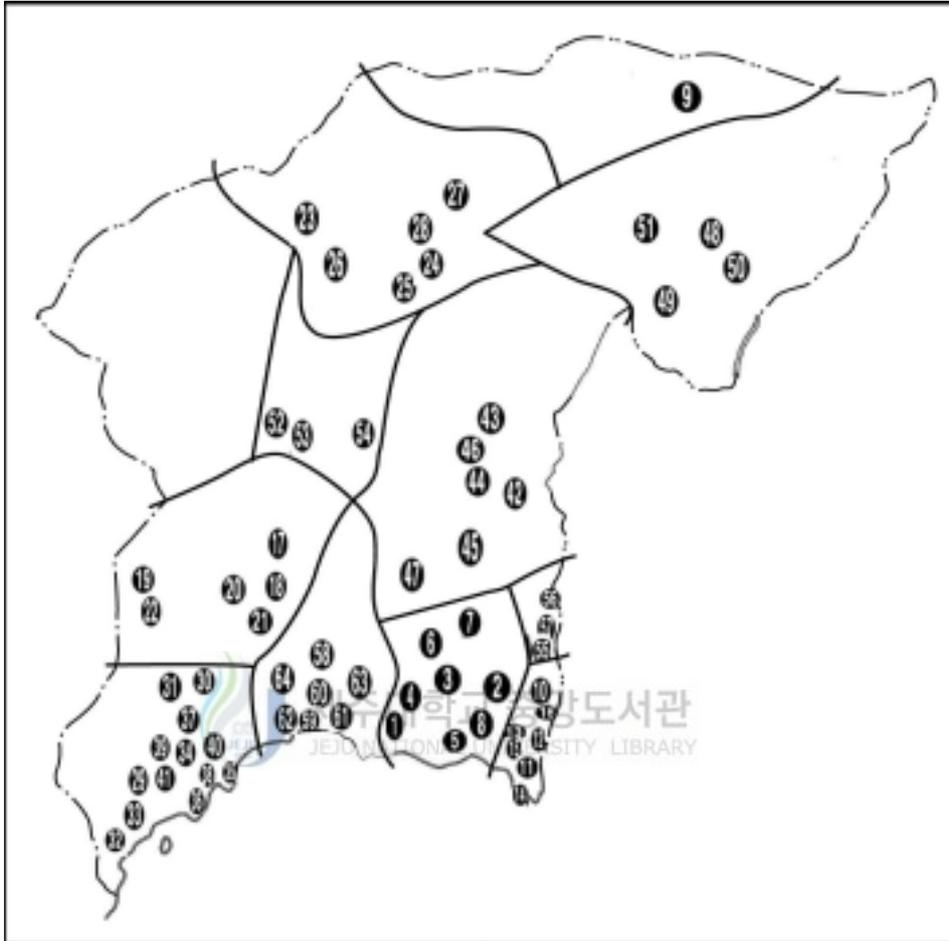
셋은 ‘둘째의’ 혹은 ‘가운데’를 뜻한다.

(3) 하

알동네(대평)	알성구못(상창)	알동네(화순)	
		하강수	
알드르(사계)	알동네(상천)		
알정물			

-7개

<그림3> 위치·방위지명 분포



1. 셋소	11. 알동네	21. 군물왓들	31. 옷거문질	41. 양재물	51. 통물동산	61. 알동네
2. 남반내	12. 동동	22. 도이뭇동	32. 알드르	42. 옷창고내	52. 뒷세물	62. 하강수
3. 안골	13. 앞마궁굴	23. 서털	33. 알정물	43. 옷성구뭇	53. 사장발물	63. 동동
4. 앞내	14. 앞별랭이	24. 앞내	34. 남창도로	44. 셋성구뭇	54. 소낭뭇동	64. 서동
5. 앞빨린이	15. 한진동	25. 무둥이왓	35. 남콰구석	45. 알성구뭇	55. 넷마랑	
6. 문어귀밭	16. 캣담밭	26. 마전동	36. 앞원	46. 쇠물동	56. 물밭동	
7. 통물동	17. 울굴왓	27. 원물오름	37. 당 뒤	47. 신남동	57. 사장발동	
8. 박수왓	18. 동동	28. 함박동	38. 용해동	48. 중동네	58. 옷동네	
9. 옷물	19. 서동	29. 옷정물	39. 큰물동네	49. 알동네	59. 상약수	
10. 옷동네	20. 앞굴왓	30. 옷콰남밭	40. 산방동	50. 동동네	60. 중동네	

(12) 인접

지명에는 그 지역의 직접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한 간접적인 특징도 반영된다. 마을 가까이에 해안이나 산(山), 내(川) 등이 인접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명들의 예는 아래와 같다.

문어귀밭(감산)	마전동(동광)	신남동(상창)
통물동	원물오름	
박수왓	함박동	통물동산(상천)
한전동(대평)	당뒤(사계)	사장밭물(서광동)
갯담밭	용해동	소낭못동
	큰물동네	
군물왓들(덕수)	산방동	넷바랑(창천)
도이못동	양재물	물밭동
		사장밭동
무등이왓(동광)	쇠물동(상창)	-24개

문어귀밭은 대문어귀에 있는 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통물동은 이 지역에 우물이 있는데 이를 ‘통물’이라 하며 이 우물을 근거지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갯담밭은 마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지역의 담 근처라 하여 붙여졌는데, ‘갯’은 들이나 지역의 한 구역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도이못동(도련동)은 마을 근처에 ‘도로못/도이못’이라는 연못이 있는데서 연유하였는데, 도로못은 감돌아드는 연못이라는 뜻이다. 원물오름은 조선시대에 대정원님이 제주목을 다녀오다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었다하여 ‘원물’이라 하며, 그 주변에 있는 오름을 이 샘의 이름에 연유하여 ‘원물오름/원수악’이라고 불리워진다.

용해동은 ‘용머리’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동네라 하여, 쇠물동은 쇠물도라고 하는 연못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유래되었는데, 쇠물동은 근처 목야지에서 마소를 방목하면서 이 연못의 물을 먹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남동은 식나무 숲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며, ‘신남’은 ‘신낭’, ‘심낭’과 아울러 식나무, 참식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

통물동산은 이 지역에 물통이 있기 때문에, 사장밭물은 옛날 군사들이 활을 쏘며

심신을 연마하던 밭과 가까이 있는 연못이 있는 데서 연유하였다. 소낭못동은 소낭 못 근처에 형성된 동네를 일컫는다. 냇바량은 냇가에 펼쳐진 들판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밭동은 근처에 연못이 있는데 이 일대가 마치 물에 잠긴 큰밭과 같았는데 연유한 이름이다.⁴⁵⁾

3) 자연물

물(水)이 있다거나 돌(石)이 많다거나 모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명의 명명 동기가 된 경우이다.

(1) 물

제주도는 특히 지질이 다공질 현무암이라 물이 고여 있지 못하고 땅속으로 스며 들고 대부분의 내(川) 비가 그치면 말라버리는 건천이라 물이 귀한 편이다. ‘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이 때문이다.

자연물과 관련된 지명의 분석결과 물에 관한 지명이 39개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물에 관한 지명일지라도 다른 유연성에 가까우면 그 쪽으로 분류하였기에 그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물 관련 지명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45) 남제주군(1995), 전계서.

각시물(감산)	넛도(동광)	넙개물(서광서)
안덕계곡	별근못	다랑못
도고샘	새못	당나못
고래소	오여물	동산물
박수		큰돈내
통물	군물(사계)	
황개물	넙나물	창고내(창천)
	산물난밭	영구물
담단물(광평)	선내	통물
몸튼물		쇠구정물
	통천(상창)	
넛동네(대평)	원예물	산받은물(화순)
박수		저수
	올래트물(상천)	펼물
도로못(덕수)		함박이물
군물	소낭못(서광동)	
	단장밭내	

-39개



담단물은 돌담을 샘가에 쌓아 수량을 많이 확보하였던 데서 연유하는데, ‘돌담을 쌓다’를 제주지역어로 ‘담을 다운다’고 한다. 몸튼물은 이 연못에 자생하는 수초가 마치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인 모자반이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몸/뭉’은 ‘물망/뭉망’ 등과 아울러 모자반의 제주지역어이다.

군물은 이 일대의 지형이 낮아 비가 내리면 옷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이곳으로 모인다고 하여 붙여졌으며, 산물난밭은 밭에서 생수가 용출한다 하여 명명되었다. ‘산물’은 살아있는 물 즉 생수(生水)를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통천은 생수가 용출하는 샘인 데서 연유하며, 올래트물은 오리가 떠 다니는 물이란 의미의 제주지역어 ‘올리튼물’의 변형이다.

통물은 통나무를 깎아 통을 만들어 물을 받았으므로, 영구물은 창고내에 있는 지역으로 아무리 가물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영구히 흐르는 물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받은물은 바위벽 틈새로 수돗물 굽기만한 물줄기가 솟고 있는데 그 물줄

기가 산을 향해 반듯하게 솟는다고 해서 붙여졌다.

펼물은 항상 펼이 고여 있다고 하여, 함박이물은 수원이 아주 적어 함박이로 떠다 먹었다 하여 유래되었다. 저수는 ‘돛물’ 및 ‘녹남물’이라고도 칭하며, 겨울에 멧돼지들이 산에서 내려와 이 물을 먹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⁴⁶⁾

<그림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 지명은 특히 감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림4> 물 지명분포



1. 각시물	11. 박수	21. 선내	31. 큰돈내
2. 안덕계곡	12. 도로못	22. 통천	32. 창고내
3. 도고샘	13. 군물	23. 원예물	33. 영구물
4. 고래수	14. 넷도	24. 올래트물	34. 통물
5. 박수	15. 벌근못	25. 소낭못	35. 쇠구정물
6. 통물	16. 새못	26. 단장밭내	36. 산반은물
7. 황개물	17. 오여물	27. 넘개물	37. 저수
8. 담단물	18. 군물	28. 다랑못	38. 펼물
9. 몸튼물	19. 넘나물	29. 당나못	39. 함박이물
10. 넷동네	20. 산물난밭	30. 동산물	

46) 남제주군(1995), 전게서.

(2) 모래/모살/몰래

모살, 몰래는 제주지역어로 모래를 뜻한다.

모살개(사계)

-1개

(3) 돌/바위

비진기정(갑산)
장군석

작지걸음(동광)

고는털빌레(서광동)

돌문(광평)

남대기빌레(사계)

돌밭(창천)

비진기정(대평)

빌레원

도채비빌레(화순)

썩은빌레

삼거림빌레

선배이돌

돌동산(덕수)

얼쿠니돌동산

유반석(화순)

돌혹밭(상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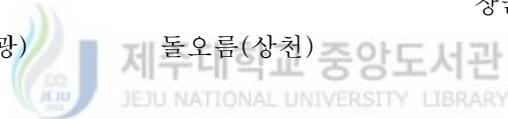
무반석

고고리암(동광)

돌오름(상천)

장군석

-22개



비진기정은 바닷가 단애에서 물이 떨어져 비가 오는 것 같다 하여 붙여졌는데, ‘기정’은 벼랑이나 절벽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썩은빌레는 그 일대에 암반이 부석부석하므로 썩은 돌이라 하여 유래되었다. 고고리암은 이 지역에 곡식 이삭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하여 명명되었는데, ‘고고리’는 곡식 이삭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작지걸음은 돌자갈이 많은 지역이다. ‘작지’는 돌자갈을 의미한다.

얼쿠니돌동산은 지형이 울퉁불퉁 얼크러져 있고 돌이 많은 동산이라 하여, 빌레원은 돌담을 둥그렇게 쌓아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는 ‘원’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빌레’는 암반의 제주지역어이다. 썩물(썩물)빌레는 물소금 즉 간수를 제조하였던 빌레라 하여 연유하는데, ‘썩물’은 짠물의 제주지역어이다.

고는털빌레는 이 일대를 뒤덮은 암반에 가는 털처럼 생긴 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채비빌레는 돌이 많은 암반 지대로 하천 하류쪽 담지내에 담수를 보내

기 위해 빌레의 돌을 캐내어 수로를 만들었다는데서 도깨비나 할 짓이라고 하여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과 도깨비가 수시로 나왔다고 하여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이 전한다. 유·무반석은 큰 바위를 일컫는데, 옛날 신작로를 중심으로 동동네는 유반, 서동네는 무반들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신분에 따른 거주지역 구분에서 연유한 이름이다.⁴⁷⁾

(4) 기타(해, 달, 흙, 바람)

월라봉(감산)	바름잔밭(덕수)	하늬보기(상천)
뽕남동네(광평)	보름잔밭(사계)	차냇군(서광서)
천흑군		해나머들
	보름이(상창)	
햇모루(대평)	하운밭	-11개

월라봉은 산의 모양이 달이 떠오르는 모습과 같아서, 뽕남동네는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뽕’은 햇벌의 제주지역어이다. 천흑군은 찰흙구덩이를 파 물통을 조성한 데서 연유하는데, ‘천흑군’은 ‘차냇군’과 함께 찰흙구덩이의 제주지역어이다. 햇모루는 햇살이 가장 먼저 비치는 능선이라 하여, 바름잔밭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바름’은 바람의 제주지역어이다. 하운밭은 이 지역 일대가 구름 가운데서 달이 비치듯이 사방이 숲으로 둘러있는 가운데 농토가 형성되어 있어, 숲을 구름에 비기고 밭을 달에 비유하여 붙여졌다. 차냇군은 찰흙이 많이 나와 토기를 만드는 데 이용된 데서 연유하였다.⁴⁸⁾

47) 남제주군(1995), 전게서.

48) 남제주군(1996), 전게서.

4) 동 · 식물

(1) 동물

동물이름이 지명에 쓰인 경우는 지형이 그 동물과 비슷하다거나 동물들이 그곳에 서식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들 지명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쌍안이물(감산)	보염동산(덕수)	용아리오름(상천)
고냉이소		
말왓	무악(동광)	오로콤밭(서광동)
말어리왓	돌오름	
뱀복대기	말통목이	매아진동산(서광서)
비작골		사수동
	구룡이(사계)	
고냉이수(광평)	매모루동산	뱀바리동(창천)
마통동	단산	오뽀물
배염내	붕어못	제미골
쇠죽은밭	볼락여	
	용머리	개뺨대기(화순)
고냉이물통(대평)	쥐내빨	까막이돌
고래수		명알목소
평망동산	성구못(상창)	어은동
소기왓	사두형	오리소
오조개		오죽돌
	거물(상천)	와막이돌
평망동산(덕수)		-44개

쌍안이물은 쌍기러기가 앉은 형태라 하여 명명되었다. 말왓은 마치 말(馬)이 엮어진 형국을 하고 있다는 설과 곡식을 되는 말(斗)과 같이 생긴 밭이라는 설이 있다. 뱀복대기는 이 길에 큰 뱀이 자주 나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므로, 주민들이 장구와 북을 치며 뱀을 당으로 몰아놓았다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비작골은 이 골짜기의 지형지세가 새가 날아가는 형치라 하여 붙여졌다.

고냉이수는 고양이들이 이 물을 먹는다 하여 불리워지고 있는데, ‘고냉이’는 고양이

이의 제주지역어이다. 마통동은 말을 몰아 물통(말우리)에 넣는 지역이라 하여, 배염 내는 이 내(川)의 지형지세가 뱀처럼 꼬불꼬불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래수는 고래가 바다에 떠있는 것 같다 하여, 썩망동산은 썩을 사냥하면서 망꾼이 망을 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기왓은 어느 양반집에서 소를 돌보게 할 목적으로 머슴을 군산 가까이 있는 이곳에 살게 하였으므로 ‘소지기왓’으로 불리워지다가 ‘소기왓’으로 변형되었다고 전해진다. 오조개는 까마귀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하여, 배염 동산은 배염(뱀)이 많은 동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악은 마치 큰 개가 누어 있는 지형과 같다 하여, 돌오름은 이 오름에서 멧돼지가 내려 온 일이 있다고 하여 불리워진다. 말통목이는 이 마을의 목장에서 키운 국마를 한데 모아 집단 방목을 시키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룡이는 아홉 개의 뱀죽이 내민 곳이 마치 용의 머리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매모루동산은 이 동산의 지형지세가 매를 닮았다고 하여 불리워진다. 단산은 마치 독수기가 날개를 펼치고 막 날아오르려고 하는 형치라고도 하고 박쥐가 날개를 편 형치와도 닮았다고 한다.

불락여는 불락이 많이 잡히므로, 용머리는 이 지역의 지형지세가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바다로 뛰어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쥐내빨은 모양이 쥐내(지네)처럼 생긴데서 연유한다.

사두형은 이 일대의 개구리들을 퇴치할 목적으로 지형을 인위적으로 뱀의 형태로 조성한 데서, 거물은 거머리가 많이 서식한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거물은 ‘거말’ 등과 아울러 거머리의 제주지역어이다.

오로콤밭은 오소리 구멍처럼 비좁은 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소리를 제주지역어로 ‘오로’, ‘지다리’라고 하는데 오소리의 집을 ‘오로콤망’, ‘오로코미’, ‘오로콤’ 등으로 일컫는다. 매아진동산은 이 동산에 매가 자주 앉았다 하여, 사수동은 이 지역의 지형지세가 마치 뱀의 머리와 비슷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오뺨물은 아낙네들이 밤에 물을 길러 가는데 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니, 이 마을에 길조가 생길 징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뺨’은 부엉이의 제주지역어이다. 제미골은 이 지역의 지형지세가 마치 돼지꼬리 같이 생겼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개뺨대기는 개(狗)의 형치를 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도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알목소는 명알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면서 밀물 때면 인근 임야지에 방목중인 소(牛)를 잡아 먹었다 하여 붙여졌다. 어은동은 바닷고기가 은신했던 곳이라 하여 ‘어은동’이라 했다는 설과 지형이 험하여 접근하기 어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진다. 오리소는 오리들이 서식하는 소(沼)하 하여, 오족들은 까마귀발 형태의 지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와막이들은 돌의 형태가 말(馬)이 드러누웠을 때 한쪽 귀만 보이는 형치라는데서 연유한다.⁴⁹⁾

이상 동물지명에 나타난 각 동물의 유래를 통하여 동물 분포내용을 살펴보면 까마귀(3개), 개(2개), 기러기(1개), 말(4개), 뱀(6개), 새(1개), 고양이(3개), 고래(1개), 꿩(2개), 소(2개), 부엉이(1개), 오소리(1개), 거머리(1개), 지네(1개), 불락(1개), 붕어(1개), 박쥐(1개), 멧돼지(2개), 용(3개), 매(2개), 독수리(1개), 명알(1개), 바닷고기(1개), 오리(1개), 거북이(1개) 등이다. 뱀(6개)이 가장 많고, 이어서 말, 까마귀, 용, 고양이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물지명은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감산리 등 주로 임해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49) 남제주군(1995), 전게서.

<그림5> 동물지명 분포



1. 쌍안이물	11. 고냉이물통	21. 구룡이	31. 영아리오름	41. 어은동
2. 고냉이소	12. 고래수	22. 메모루동산	32. 오로콤포발	42. 오리소
3. 말왓	13. 평망동산	23. 단산	33. 메아진동산	43. 오죽돌
4. 말어리왓	14. 소기왓	24. 봉어못	34. 사수동	44. 와막이돌
5. 뱀복대기	15. 오조개	25. 불락여	35. 뱀바리동	
6. 비작골	16. 평이동산	26. 용머리	36. 오뿔물	
7. 고냉이수	17. 보염동산	27. 쥐내빨	37. 재미골	
8. 마통동	18. 무악	28. 성구못	38. 개뻥대기	
9. 배염내	19. 돌오름	29. 사두형	39. 까막이돌	
10. 쇠죽은밭	20. 말통목이	30. 거물	40. 명알목소	

(2) 식물

제주도에서 나무를 ‘낭’이라고 부른다. 지명에는 나무나 꽃, 열매 등의 모양과 비슷하거나 그 종류의 나무가 많이 분포한 곳에 붙여지기도 한다. 식물 관련 지명의 예는 아래와 같다.

시산(감산)	거새왓(동광)	비지남물(상천)
볼래낭동산	돌방낭구석	차남동산
	삼밭구석	
감시남궤(광평)	볼래낭도루	만죽동(서광동)
강남물	새오리동산	안태술
서남동산		
감자왓	고장나목(사계)	남송악(서광서)
	굴개낭목	도랑꽃
갈래수(대평)	닥밭	
갈오름	소남밭	굴거리낭동산(창천)
대왓기정	속밭	닥밭소
밤남이괘	왕보리왓	머구낭동산
	최골동산	감산
개남밭(덕수)		
무남밭	뽕차남(상창)	변내(화순)
원남밭	신남밭	굴개남밭
차남밭	죽생동	칠남밭
쿤남밭		
외소랑목		-44개

시산은 산 모양이 감(栉)과 비슷하다고 하여, 볼래낭동산은 보리수가 자라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볼래낭’은 보리수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 가시남궤는 가시나무가 있는데서 연유한다. ‘가시남’은 가시나무를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강남물은 이 연못 주변에 야생 감나무가 많아 붙여졌는데, 강남은 ‘감낭’과 아울러 감나무를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서남동산은 서나무가 무성한데서 연유한다. ‘서남’은 서나무의 제주 지역어이다.

밤남이괘는 밤나무가 있어서, 갈래수는 갈래(풀)가 많이 떠 있다하여 붙여졌다.

갈오름은 칩이 자생하여, 대왓기정은 대나무가 숲을 이루는 데서 연유한다. 개남밭은 누리장나무가 무성한 데서 연유하는데, 개남은 ‘개낭’과 아울러 누리장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

무남밭은 향나무가 있었던 데서 유래되었다. ‘무남’은 향나무를 드물게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원남밭은 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원남’은 음나무의 제주지역어 ‘엄낭’의 변형이다. 차남밭은 차나무가 있던 곳을, 쿤남밭은 쿤나무가 있던 곳을 말한다. 외소랑목은 소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거새왓은 토심이 깊어 떠가 잘 자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돛방낭구석은 동백나무가 숲을 이뤄 무성한 데서 연유하는데, ‘돛방낭’은 동백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 삼밭구석은 삼나무를 지었다는 데서, 새오리동산은 이 동산의 지형지세가 마치 부추처럼 한 곳을 향해 누워있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오리는 ‘새우리’와 아울러 부추의 제주지역어이다.

고장나무는 백일홍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고장’은 꽃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굴개낭목은 굴거리나무가 서 있는 데서 연유하는데, ‘굴개낭’은 굴거리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 닥밭은 이 지역 일대에 닥나무가 무성하였던 데서, 소남밭은 소나무밭이었던 데서 연유한다. 속밭은 쭈이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 ‘속’은 쭈이의 제주지역어이다.

되차남은 상수리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데서 연유하는데, ‘차(츠)남’은 상수리나무 혹은 떡갈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 신남밭은 식나무 숲이었던 데서 비롯되는데, 신남은 신낭, 심낭과 아울러 식나무, 참식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 죽생동(대남도)은 이 지역에 묘를 쓰려고 대나무를 꺾어 꽃아 표시를 한 것이 그 꽃이어서 새순이 나왔다는 데서 연유한다. 비지남물은 비자나무가 자생하여 숲을 이루고 산나물이 많이 난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만죽동(만주동)은 대나무(竹)가 울창하다 하여, 남송악은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랑곳은 이 숲 지대가 달랑하니 외따로 떨어져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곳’은 깊은 숲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굴거리낭동산은 굴거리나무의 숲이었던 데서, 머구낭동산은 머귀나무가 숲을 이루었던 데서 유래되었다. 번내는 ‘벧내’의 변형으로 냇가에 논이 있어 벼가 많이 생산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굴게남밭은 굴거리나무가 무성하여, 칠남밭은 옷나무가 무성한 밭이라 하여 불리워지고 있다. ‘칠남’은 옷나무의 제주지역어이다.⁵⁰⁾

이상 식물지명에 나타난 각 식물의 유래를 통하여 식물 분포내용을 살펴보면, 감(1개), 띠(1개), 칩(2개), 부추(1개), 쪽(1개), 벼(1개), 보리(1개), 감자(1개), 숲(2개), 가래풀(1개), 감나무(2개), 보리수나무(2개), 가시나무(1개), 서나무(1개), 대나무(3개), 밤나무(1개), 누리장나무(1개), 동백나무(1개), 향나무(1개), 삼나무(1개), 음나무(1개), 옷나무(1개), 머귀나무(1개), 비자나무(1개), 식나무(1개), 상수리나무(2개), 백일홍나무(1개), 굴거리나무(3개), 닥나무(2개), 소나무(3개), 차나무(1개), 쿤나무(1개) 등이다.

대나무(3개)와 굴거리나무, 소나무에 대한 지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나무는 취락의 분포를 말해주는 식물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도에서는 예전부터 집 주위에 대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대나무는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생활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물지명은 사계리, 덕수리, 동광리 순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다.



50) 남제주군(1995), 전게서.

<그림6> 식물 지명분포



1. 시산	11. 개남밭	21. 새오리동산	31. 죽생동	41. 감산
2. 불래낭동산	12. 무남밭	22. 고장나목	32. 비지남물	42. 변내
3. 감시남패	13. 원남밭	23. 굴개낭목	33. 차남동산	43. 굴개남밭
4. 강남물	14. 차남밭	24. 닥밭	34. 만죽동	44. 칠남밭
5. 서남동산	15. 쿤남밭	25. 소남밭	35. 안태술	
6. 감자왓	16. 외소랑목	26. 속밭	36. 남송악	
7. 갈래수	17. 거새왓	27. 왕보리왓	37. 도랑곶	
8. 갈오름	18. 돛방낭구석	28. 침골동산	38. 굴거리낭동산	
9. 대왓기정	19. 삼밭구석	29. 피차남	39. 닥밭소	
10. 밤남이괘	20. 불래낭도루	30. 신남밭	40. 머구낭동산	

2. 인문지명

1) 경제

(1) 밭·과수원

경작지로 주로 이용되는 밭·과수원에 대한 지명이다. ‘위영’, ‘우영’은 제주지역어로 집 바로 곁의 채소밭을 뜻하며, ‘가온’, ‘과온’은 과수원을 말한다.⁵¹⁾ 밭·과수원 관련 지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강제왓(감산)	좁소리왓(덕수)	가매왓(서광동)
너븐밭	푸는채왓	물평밭
대천밭	무등이왓	도용남밭
못밭		왜그릇밭
강당장우영	하온밭(동광)	내고랑밭
강풍원우영	설왓(동광)	
안평상우영	생트리왓	모루왓(서광서)
	너백이왓	
영화왓(광평)	각시된밭	도목이왓(창천)
멀왓	양잠단지	서툼밭
차푸시밭		
한천이밭	강산이왓(사계)	가원이(화순)
터덩이밭	고개왓	개남밭
북수리왓	남선밭	장서방우영
	샘이왓	황선달밭
모르왓(대평)		
돔빙이왓	가남밭(상창)	-44개
넙은밭	한수방올래	
남백이밭		

지명들 가운데 밭, 왓, 우영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체로

51) 고희정, 전계논문, p. 31.

경작지로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한몫을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감산리의 강당장우영, 강풍원우영, 안평상우영 등은 밭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밭·과수원 지명의 경우 대략 적인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지명의 유래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주로 소유자의 이름이나 지형·지세, 인접한 자연경관의 이름을 빌려오고 있다.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밭·과수원 지명은 감산리, 동광리, 광평리에 많이 분포되고 있다. 특히 감산리의 경우, 오늘날 과수원이 주요 경제기반이 되고 있기도 하다.

(2) 논

논지명의 분포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명밭(감산)	당کم논(대평)	조물이물(사계)
맷밭	막은굴논	
섯귀정답	모랏논	호곰밭(화순)



-9개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지명은 감산, 대평, 사계, 화순리 등 주로 임해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와는 구별되고 있다.

경제 관련지명에서 밭·과수원 지명이 44개인데 비하여 논지명은 9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지질특성상 밭과 과수원 중심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논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림7> 밭·과수원 지명분포



1. 강제왓	11. 한천이밭	21. 하온밭	31. 가남밭	41. 가원이
2. 너븐밭	12. 터랭이밭	22. 설왓	32. 한수방올래	42. 개남밭
3. 대천밭	13. 북수리왓	23. 생트리왓	33. 가매왓	43. 장서방우영
4. 못밭	14. 모르왓	24. 너백이왓	34. 물평밭	44. 황선달밭
5. 강당장우영	15. 돛방이왓	25. 각시된밭	35. 도용남밭	
6. 강풍원우영	16. 넘은밭	26. 양잠단지	36. 왜그릇밭	
7. 안평상우영	17. 남백이밭	27. 강산이왓	37. 내고랑밭	
8. 영화왓	18. 좁소리왓	28. 고개왓	38. 모루왓	
9. 멀왓	19. 푸는채왓	29. 남선밭	39. 토목이왓	
10. 차푸시밭	20. 무등이왓	30. 샘이왓	40. 서톱밭	

<그림8> 논 지명분포



- | | | |
|---------|---------|---------|
| 1. 구명밭 | 4. 당콩논 | 7. 저수지논 |
| 2. 뗏밭 | 5. 막은굶논 | 8. 조물이물 |
| 3. 섯귀정답 | 6. 모랫논 | 9. 호곰밭 |

2) 교통

(1) 다리

다리(橋)와 관련된 지명으로써 주변에 내(川)가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리 관련 지명은 다음과 같다.

조순다리(감산)	돌다리(동광)	창천교(창천)
조순다리(대평)	망다리(사계)	-5개

감산리의 조순다리는 해안가의 절벽을 쪼아서 지름길을 만든데서 유래하며, 대평리의 조순다리는 선비손돌 남쪽에 있는 돌다리를 말하는데, 두 지역이 해안을 끼고 서로 인접하고 있어서 조순다리는 같은 지역을 각기 마을에서 바라볼 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천교는 창고내에 있는 다리를 말한다.⁵²⁾

(2) 길/도(道)/질

‘질’은 길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길 관련 지명은 아래와 같다.

말머릿도(감산)	말머릿도(덕수)	모루жат도(상창)
말질	새난질	김이방도
물질(대평)	단장모르(동광)	한질새왓(서광서)
쉐울목	육커리	장고도로(화순)
개나모루	거문질(사계)	-14개

말머릿도와 말질, 물질 등은 말을 몰고 다녔던 길에서 유래되었다. 개나모루나 모루жат도에서 모루는 고개길을 말한다. 동광리의 단장모르는 동광에서 서광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육커리는 여섯갈래의 길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늘날 동광리는 안덕면을 비롯하여 대정읍,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52) 남제주군(1995), 전게서.

(3) 포구

포구 관련 지명은 다음과 같다.

당캐(대평)

범질포(화순)

화순항

토끼포구(사계)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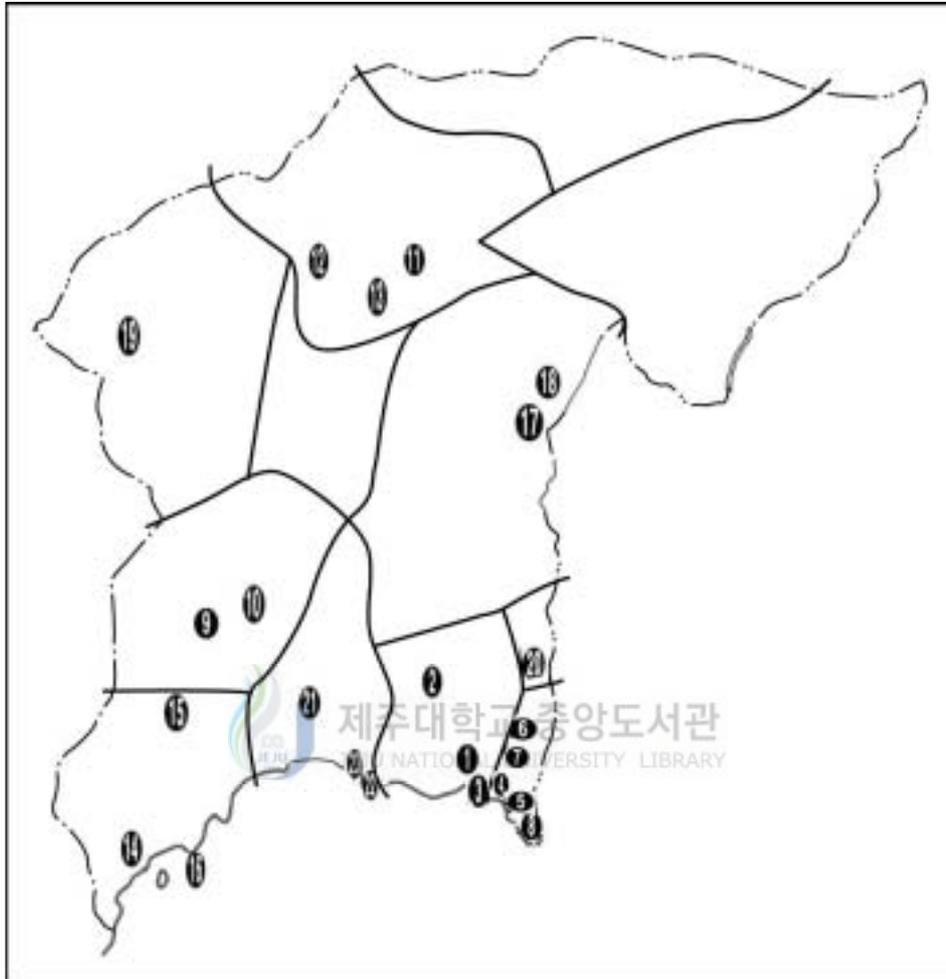
포구지명은 포구를 통한 주민들의 어업활동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당캐는 대평리의 옛 포구를 일컫는데, 중국의 당(唐)과 원(元)나라에 말과 소를 반출하는 세공선과 교역선이 내왕한 데서 유래되었다. 토끼포구는 윗마을인 큰물동네 도요지에서 생산해 낸 토기를 이 포구에서 실어나른 데서 연유한다. 토끼는 태우전용 포구인 ‘태개’ 혹은 ‘토기’의 변형이라고 한다.⁵³⁾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지명은 대평리, 동광리, 감산리, 사계리, 화순리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53) 남제주군(1996), 전계서.

<그림9> 교통 지명분포



1. 조순다리	6. 쇠울목	11. 돌다리	16. 토끼포구	21. 장고도로
2. 말머릿도	7. 개나모루	12. 단장모르	17. 모루갓도	22. 범질포
3. 말질	8. 당캐	13. 육커리	18. 김이방도	23. 화순항
4. 조순다리	9. 말머릿도	14. 망다리	19. 한질새왓	
5. 물질	10. 새난질	15. 거물질	20. 창천교	

3) 故事

고사관련지명에는 신앙, 풍수지리, 전설/유래, 신구 지명 등으로 분류하였다.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복을 기원하였던 신앙 지명, 살아가면서 길흉화복을 살펴보았던 풍수지리 지명, 오래 전부터 구전을 통하여 전해지는 전설/유래지명, 마을의 형성과 관련하여 새롭고 낯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구 지명 등이 그것이다.

다음에 살펴보게 될 유적·유물지명이 구체적인 사물이나 옛터 등과 관련이 있는데 비하여 고사지명은 추상적인 관념이 반영된다 하겠다. 고사와 관련한 지명은 109개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여 안덕면에 분포된 지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자연환경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추상적인 관념의 내용을 지명에 많이 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신앙

신앙과 관련된 지명은 다음과 같다.

남당동(감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산재구석(상창)
당의터	당오름(동광)	재무근동산
곱당괘(광평)	광정당(사계)	남당(창천)
	공자묘	닥발당
당밭(대평)	당머리	친발당
미륵골	당물	마애문
할망물	신맛이동산	
포젯단	절터왓	원당밭(화순)
당할맹이	봉승묘터	포젯동산
		화강사
신당(덕수)	당아진밭(상창)	
광영당		

-29개

곱당패는 관(官)에서 당(堂) 첩첩령을 내리자, 동굴 속에 당을 숨겨놓은 데서 연유하며, 당밭은 마을을 수호하는 본향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미륵골은 미륵불이 있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할망물은 대평리의 '본향당'을 '할망당'이라고 하는데 당에 제사를 지낼 때 이 곳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를 이용하여 메와 제물을 마련한데서 연유한다.

당오름은 당(堂)이 있었던 데서, 이베장동산은 마을의 공동의례인 별·포제를 지내는 동산인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광정당은 제주섬을 수호하는 세 한라산신 중의 한 신위가 좌정한 광정당(廣靜堂)이 있었던 데서, 신맞이동산은 근처에 '광정당'이 있어 신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던 데서 불리워진다. 절터왓은 절이 있었던 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재구석과 채무근동산은 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남당은 제주목사 이형상이 내(川) 인근에 있던 신당을 철거하자, 이 당의 신앙민 일부가 서남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당을 세운데서 연유한다. 마애문은 석벽에 새긴 시문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원당밭은 '일레중저'라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본향당이 있어서, 포켓동산은 포제를 지냈던 곳이라 하여 연유한다.⁵⁴⁾

신양지명은 사계리와 대평리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임해지대로서 어업생활과 관련하여 마을의 평안과 개인의 안전을 기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풍수지리

풍수(風水)는 중국 후한 말에 일어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기초하여 집, 무덤 같은 것의 방위, 지형 등이 좋고 나쁨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한 가지 학설이다.⁵⁵⁾ 풍수지리 지명은 다음과 같다.

54) 남제주군(1995), 전계서.

55) 이환곤(1986), 전계논문, p. 37.

광택이동산(감산)	영덕얹은밭(동광)	생기동산(서광서)
북동산		응전동
양재소	거욱대개(사계)	진보동
금장지(대평)	천망동(상천)	-10개

광택이동산은 이 지역의 지형지세가 마치 여인이 임신한 것과 닮았는데 풍수지리설에 의거, 강씨 집안에서 묘를 썼다 하여 처음에는 ‘강택동산’이라 했던 것이 ‘광택이동산’으로 변형되었다. 북동산은 이곳에 조상의 무덤을 쓰면 무당이 나온다 하여 북동산이라 했다는 설과 묘의 모양이 북 형국이므로, 이에 연유하였다는 설 등이 전해진다.

양재소는 제주섬 제3대 집터 중의 하나라고 불리워지는 ‘뱀바리터’가 창천리에 있는데 근처에 위치한 드넓은 소(沼) 덕분에 ‘뱀바리터’ 집이 부자가 되었다는데 재물을 양산하는 소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장지는 군산 봉우리에 ‘쌍선망월형(雙仙望月形)’이라 하는 명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든다 하여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영덕얹은밭은 이 밭에 바위그늘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밭은 배의 형치라고 한다.

거욱대개는 ‘거욱대’, 즉 허한 방위를 보하고 사악한 기운을 차단할 목적으로 세우는 방사탑에 해당하는 솟대를 세웠던 바닷가인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천망동은 상천리의 설촌 당시 한 풍수사가 지나가다 “이 마을은 저 냇물을 바라보는 형이다”라고 한데서 연유한 이름이라고 전해진다.⁵⁶⁾

풍수지리 관련지명은 주로 감산리와 서광서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56) 남제주군(1995), 전거서.

(3) 전설/유래

전설/유래 관련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강동이터(갑산)	원물(동광리)	원샘이왓(서광동)
동녕밭	조수개	망수기
망동산	양챙이엿	소경밭
수경이왓		
저승문	고가물(사계)	개다리왓(서광서)
	불칸이멩이	관전동
고백이동산(광평)	불칸터	망동산
고장친밭	산방굴	망수기
등목이동산	설کم	백개동산
모살목	여배파혼여	석수왓
조가동	유생원동산	중통목동산
조근대비악	절잔개	호패물
양호네밭	토끼동(토기동)	
행기소	사계동산	깃발동산불큰터(창천)
숯군동산	고승목(상창)	토산동
왕이매	허씨뱅디	노끈오름(화순)
선비기돌(대평)	득수밭	보막은소
장수얏은돌	목재동산	사근다리동산
저승문		신산동산
	모록밭(상천)	양왕자터
집골왓(덕수)	문덕케	팔풍이목
장씨동산	장막동산	호병삼이
홍알망동산		대필막거리
상뒤동산	건곤동(서광동)	
	불컨터	

-66개

동녕밭은 ‘신산오름’에 묘를 쓰고 묘지기 막을 짓는데 마침 지붕을 이을 띠(새)가 없어 인근에서 상록수 잎을 동냥질하여 지붕을 덮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동녕’은 남한테 빌어먹고 사는 동냥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망동산은 봉화를 들고 망

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저승문(이두어시)은 ‘월라봉’ 남쪽 평지를 일컫는데, 저 이(伊)자, 머리 두(頭)자, 어거할 어(御)자를 써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곳, 저승입구라는 뜻으로 불리워진 이름이다. 고백이동산은 고백이라는 이가 살았다 하여, 고장친밭은 옛날 고(高)씨가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모살목은 ‘마통동’으로 말을 몰아넣기 위해 길목을 지켰다는 데서, 조가동은 조씨성을 가진 이가 설촌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근대비악은 대비라는 선녀가 하늘에서 이 오름에 내려와 사방을 두루 살펴보고 놀다 간 일이 있다 하여, 양호네 밭은 ‘양호’라는 사람이 소유한 밭을 의미한다. 행기소는 이 물위에 떠있는 낚그릇을 건지려다 주인이 빠져 죽었다고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행기’는 낚주밭의 제주지역어이다.

숫곶동산은 숫구덩이를 조성하여 숫을 굽던 터여서 연유한다. ‘숫곶’은 숫구덩이의 제주지역어이다. 왕이매(왕이피)는 옛날 삼신왕이라는 왕이 이 오름의 정상에 깊이 패인 분화구 ‘배리창’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삼일간 쉬고 기도하다가 죽었다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선비기들은 옛 중국 진나라 시황제 때 불로초를 캐러왔던 서불이 동남동녀 500명을 거느리고 이곳을 지날 때 낙오된 한 선비가 이 절벽에 글을 썼다는 데서 유래한다. 상뒤동산은 마을 상두(회의 장소)가 있던 동산이라는데서, 흥알망동산은 망을 보았던 동산에서 따온 말이다.

고가물은 주인 고(高)씨가 눈에 물을 대는 우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불칸이멩이는 예전에 산불이 나 산방산 중턱 즉, 이마에 해당하는 일대가이 화재를 당하니 이에 연유한다. ‘이멩이’는 이마의 제주지역어이다. 산방굴(산방덕)은 전설상의 여신인 산방덕이 산방산의 굴 안에서 죽어 바위가 되었다는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설콧은 열기설기 얽혀진 바위투성이 지대 등을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여배과흔여는 이 여에 왜선이 좌초하여 파선되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여배’는 왜선 즉 일본배를 일컫는 제주지역어이다. 토끼동(토기동)은 토끼포구가 있는 동네이며, 사계동산은 큰 동산이 자리잡고 있어 마을을 상징했던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허씨뺑디는 이 지역 일대에 허씨 집안의 토지가 많았는데 부자라는 것을 과시하

려고 그 집안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득수밭은 ‘득수’라는 사람이 소유한 밭을, 목재동산은 목동들이 망을 보았던 동산을 말한다. 문덕케는 마을 입구에 돌문이 있다하여, 장막동산은 예전에 마을에 큰 일이 있어 이 동산에 장막을 쳐 일을 치루었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원샘이왓은 ‘원삼’이란 이가 소유하였던 데서, 망수기는 망을 보았던 장소를 말하고, 소경밭은 ‘소경’이라는 이가 소유하였던 밭이라는 데서 불리워진다. 개다리왓은 옛날 물물교환시대에 개다리 한쪽과 교환한 밭이라고 하여 전해진다. 관전동은 관(官)이 소유한 지역으로, 경작지에서 생산된 곡식은 관청에 상납하였다고 하는데 국유지에 설촌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동산은 망꾼이 사냥꾼과 사냥감의 동태를 살피던 동산인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석수왓은 ‘석수’가 소유하여 돌담을 잘 다듬어 쌓았는데 이에 연유한다. 중통목동산은 일제강점기 때 대포를 걸었던 곳이라 하여, 호패물은 지번을 부여받은 연못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깃발동산은 옛날 원님이 순력(巡歷)을 돌 때 이 지역에 당도하면 그가 도착했다는 표시로 깃발을 꽂았다고 한다.

창천리의 토산동(토깃동네)은 강씨 선조가 토산리의 김씨 성을 가진 아낙네와 혼인을 하여 택호를 토산이라 한 것이 후에 동네이름으로 불리워졌다는 설과 이 동네에서 토기를 굽는 일을 하므로 이에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이 전한다. 노끈오름은 예전에 남의 집 일을 하는 ‘노복꾼’들이 모여 살던 곳인 데서 연유한다.

보막은소는 논에 물을 대는 답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를 쌓아올려 물을 막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근다리동산은 해안가와 인접해 있어 풍파가 크게 일 때 동산 정상까지 모래를 쌓아 올리면 풍년이 들고 정상의 모래를 씻어가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 신산동산은 신선 4명이 바둑 두는 형이라는 데서 연유하는데, 신선동산이라 부르다가 신산동산으로 바뀌었다.

양왕자터는 ‘양왕자’라는 이가 거주했다 하여, 팔풍이목은 이 지역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팔풍이’는 과장하거나 거짓말이 심한 것, 또는 그 인물을 일컫는 제주의 속어이다. 호병삼이는 옛날 병정들이 모여 훈련을 하며 호령하던 곳이라 하여, 대필막거리는 대필목 보관소 즉 상여집이 있던 곳이다.⁵⁷⁾

57) 남제주군(1995), 전계서.

<그림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설/유래 지명은 사계리, 광평리, 서광서리, 화순리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10> 전설/유래 지명분포



1. 강등이터	11. 조근대비약	21. 홍알말동산	31. 여배파혼여	41. 문덕괘	51. 망수기	61. 사근다리
2. 동녕밭	12. 양호네밭	22. 상뒤동산	32. 유생원동산	42. 장막동산	52. 백개동산	동산
3. 망동산	13. 행기소	23. 원물	33. 절잔개	43. 긴곤동	53. 석수왓	62. 신산동산
4. 수경이왓	14. 솟곶동산	24. 조수개	34. 토기동	44. 불킨터	54. 중통목동산	63. 양왕자터
5. 저승문	15. 왕이매	25. 양챙이옛	35. 사계동산	45. 원샘이왓	55. 호패물	64. 팔풍이목
6. 고백이동산	16. 선비기돌	26. 고가물	36. 고승목	46. 망수기	56. 깃발동산	65. 호병삼이
7. 고장친밭	17. 장수얏은돌	27. 불칸이멩이	37. 허씨뽕이	47. 소경밭	57. 불큰터	66. 대필막거리
8. 등목이동산	18. 저승문	28. 불칸터	38. 득수밭	48. 개다리왓	58. 토산동	
9. 모살목	19. 집골왓	29. 산방굴	39. 목재동산	49. 관전동	59. 노끈오름	
10. 조가동	20. 장씨동산	30. 설골	40. 모록밭	50. 망동산	60. 보막은소	

(4) 신구(新舊)

마을이름에 ‘새롭다’ 혹은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쓰인 경우이다. ‘묵은’은 마을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신구 지명은 아래와 같다.

묵은터동(감산)	셋동네(덕수)	새물통(사계)	
	묵은새동네		-4개

묵은터동은 옛날 고씨 집안에서 새 집을 짓고 이주를 하려다 화재를 당해 다시 돌아와 살았다는데서 연유한다. 셋동네는 새로 생긴 동네라 하며, 묵은새동네는 마을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나 폐동이 되니 이에 붙여진 이름이다.⁵⁸⁾

4) 유적 · 유물

(1) 사장(射場)

사장은 활터자리, 활과 관련된 지명이다. 솔대는 활을 쏠 때 과녁으로 쓰는 솔을 버티어 놓은 나무이다. 사장지명의 유래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솔대왓(감산)	활손동산(동광)	사장밭(창천리)	
사장밭(덕수)	송죽동(사계)	논오름(화순)	
		솔대왓	
중통굴(동광)	사장밭(서광서)		-9개

솔대왓은 무예를 연마하며 활을 쏘던 터를 말하여, 사장밭은 사장(활터)이 있던 자리를 말한다. 중통굴은 활을 쏠 때 이용하던 방패용 돌이 있었던 데서, 활손동산은 궁사들이 활을 쏘며 심신을 연마하던 동산인 데서 연유한다.

송죽동은 이 지역에 ‘쫄대(射臺)’를 세우고 무예를 연마하며 활을 쏘던 자리라 하

58) 남제주군(1995), 전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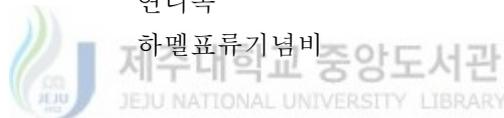
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후 ‘솔대’의 발음에서 뜻을 취하여 솔대(松竹)가 되었다. 논오름은 옛날 이 오름에서 활을 쏘며 싸움연습을 했다 하여 ‘노은’이라고 했던 것이 변형되어 논오름으로 되었다.⁵⁹⁾

사장지명은 동광리와 화순리, 감산리, 덕수리, 사계리, 서광서리, 창천리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념비/비석/탑/門

기념비 관련 지명은 마을에 공적을 세웠거나 효행을 한 이를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사적인 유적 등도 이에 해당한다. 기념비 관련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답단이(감산)	효자현재옥비(덕수)	김광종개척기념비위(화순)
서제임선생적려유허비		김파총공덕비
	비석거리(사계)	
성문(대평)	연디목	



하멜표류기념비

-9개

답단은 이 지역에 탑을 세워 허한 기를 보하고 사악한 기를 막았던 데서 연유하며, 성문은 옛 성문이 있던 터를 말한다. 효자현재옥비는 효자 현재옥이 천성이 어질고 행실이 착하였으며 가난했지만 부모를 극진히 공양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제주목사가 감동하여 완문(完文)을 만들어주고 효행을 표창하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석거리는 길거리 한 켠에 비석이 있던 곳을, 연디목은 연대(烟臺)가 있던 자리를 말한다. 하멜표류기념비는 네덜란드 사람 하멜의 표류를 기념하여 만든 비이다. 김광종개척기념비위는 김광종이라는 사재를 들여 수리 시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데서 연유하였다.⁶⁰⁾

기념비와 관련한 지명은 사계리와 감산리, 화순리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59) 남제주군(1995), 전계서.

60) 남제주군(1995), 전계서.

(3) 기타(고인돌, 염전)

유적·유물 지명 가운데 고인돌 및 염전과 관련한 지명이다. 특히 선사시대 유물 가운데 하나인 고인돌과 소금을 생산하던 장소인 염전의 지명을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권돌(감산)

소금막(사계)

소금막(화순)

괘아진동산(덕수)

권돌(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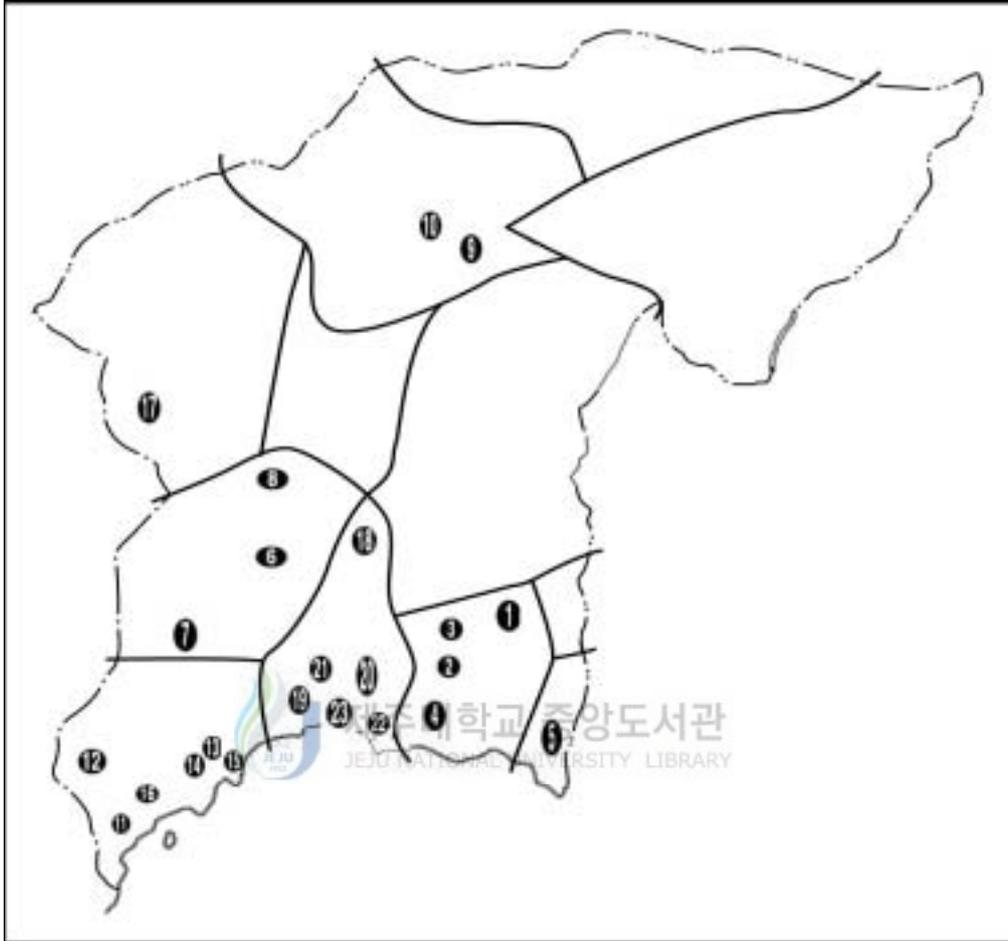
-5개

권돌과 괘아진동산은 고인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고인돌이 있었다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소금막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할 목적으로 이 지역에 막을 지어 생활한데서 연유한다.⁶¹⁾ 바다와 인접한 사계리와 화순리에서 볼 수 있는 지명이다.



61) 남제주군(1996), 전계서.

<그림11> 유적·유물 지명분포



1. 솔대왓	6. 사장밭	11. 송죽동	16. 사장밭	21. 김과총공덕비
2. 답단이	7. 효자현재옥비	12. 비석거리	17. 사장밭	22. 편돌
3. 서제임선생적거유허비	8. 패아진동산	13. 연디목	18. 논오름	23. 소금막
4. 편돌	9. 중통굴	14. 하멜표류기념비	19. 솔대왓	
5. 성문	10. 활손동산	15. 소금막	20. 김광중개척 기념 비위	

3. 기타지명

기타지명은 명명기반이 불분명하여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하거나 <표4>의 유형분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타지명은 총 4개이며, 전체의 0.8%를 차지한다.

단장(동광)
붉은오름

군여(사계)
다섯무덤

-4개

단장과 붉은오름은 명명기반이 불확실한 경우이다. 단장은 동광리의 옛이름인데 유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붉은오름은 명악(明岳)이라고도 불리는데, 역시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군여는 무리져 있는 여의 이름을 말하여, 다섯무덤은 옛부터 묘가 다섯 개가 있어서 불리워지고 있다.⁶²⁾



62) 남제주군(1995), 전계서.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남제주군 안덕면을 사례로 이 지역에 분포하는 528개의 지명들을 대상으로 지명의 분포와 유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안덕면 내에 분포되어 있는 528개 지명 가운데 자연지명은 316개(59.8%), 인문지명은 208개(39.4%), 기타지명은 4개(0.8%)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항목별 빈도율을 보면, 고사(故事)지명이 109개(20.6%)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어서 지형·지세지명 91개(17.2%), 동·식물지명이 각각 88개(16.7%), 자연물지명 73개(13.8%), 위치·방위지명 64개(12.1%), 경제지명 53개(10%), 교통지명 23개(4.4%), 유적·유물지명 23개(4.4%) 순으로 나타났다.

3. 동리별 주요 분포내용을 보면, 물지명은 감산리와 창천리에, 밭·과수원지명은 감산리와 동광리, 서광동리에, 전설/유래지명은 광평리와 사계리, 상천리, 서광동리, 서광서리, 화순리에, 지물형지명은 대평리와 상창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지명은 화순리에, 식물지명은 덕수리와 창천리에, 신앙지명은 창천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4. 임해지대(감산, 대평, 사계, 창천, 화순리)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300개로서 전체의 56.8%를 차지한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동물 및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각각 28개(9.3%)이다. 이어서 지물형 지명이 23개(7.7%)로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물과 밭·과수원, 신앙 지명이 각각 21개(7.0%)로 나타났다.

5. 중간지대(덕수, 상창, 서광동리, 서광서리)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126개로서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전설/유래와 관련한 지명으로 22개(17.5%)이다. 이어서 지물형과 식물지명이 각각 13개(10.3%) 나타났으며, 물과 밭·과수원 지명도 각각 11개(8.7%)로 집계되었

다.

6. 산간지대(광평, 동광, 상천리)에 분포되어 있는 지명의 수는 102개로서 전체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산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전설/유래와 관련된 지명으로 16개(15.7%)이다. 이어서 밭·과수원지명이 12개(11.8%), 식물지명이 11개(10.8%)이다.

8. 지명을 통하여 각 마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였다. 지명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해당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어온 역사적인 내용들을 명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명은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일부 반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길부(1997), 『땅이름국토사랑』, 집문당.
- 남제주군(1995), 『우리 固有地名由來集』, 남제주군청.
-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固有地名』, 남제주군청.
- 남제주군(2002), 『제42회 통계연보 2002』, 남제주군청.
- 朴用厚(1992), 『濟州島 옛땅이름연구』, 제주문화사.
- _____(1988), 『濟州方言研究(考察篇)』, 과학사.
- 石宙明(1968), 『濟州島 隨筆』, 濟州島叢書4, 寶晉齋.
- _____(1971), 『濟州島 資料集』, 濟州島叢書6, 寶晉齋.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해민정신』, 제3판, 도서출판 각.
- 안영진(2002),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도서출판 한울.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 출판부.
- 21세기 역사문화아카데미강좌 자료모음집(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1990), “제주도부락지 I,II,III”, 『탐라문화총서 6, 7, 8』.
- 진성기(1960), 『제주도지명의 유래』, 제주도 관광안내소.
- _____(1960), 『남국의 지명유래』, 제주민속총서7, 제주민속연구소.
-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제주·전남편)』, 한글학회.

<향토지>

- 감산리(2002), 『감산향토지』.
- 김용하(1991), 『안덕향토지』.
- 남제주군(1986), 『남제주군지』.
- 사계초교(2003), 『사계향토지』.
- 제주대 향토자료실(1994), 『향토지(남제주)』-안덕지역 vol.14.

제주시 사계향우회(1996), 『사계향우-창간호』, 제주시 사계향우회.
화순리(2001), 『화순리지』.

<논문>

- 고혜정(1992), “제주도 지명연구: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마을을 중심으로”,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욱(1999), “제주도 외래 종교의 공간적 확산과 수용 배경”,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김연옥(1986), “한국의 기후 지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 김옥자(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홍천군과 양양군, 속초시를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자(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洪植(1978), “濟州島地方의 地名에 대하여-특히 地名接尾辭를 中心으로-”, 『제주대논문집』, 10, 제주대.
- 남영우(1996), “고지명 ‘두모’연구”, 지리교육논집, 제36집.
- 서명인(1998), “청원군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국자(1998), “평야지역과 산지지역 촌락지명의 비교연구: 창녕군과 청송군의 경우”,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보영, 최형식(1984), “주거형태와 취락형태간의 문화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자연취락을 중심으로”, 『환경연구』 제5권, 서울대환경대학원 원우회.
- 신중성(1982), “종교적 언어 경관의 분포 유형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논문집, 제17집.
- 신현웅(1981), “충북 보은군 촌락명의 유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여택(1972), “濟州島地名研究-그 特性을 中心으로-”, 『논문집』, 4, 제주대.
- _____(1975), “濟州島地名의 構成-中文面의 地名을 中心으로-”, 『국문학보』, 7,

중문리학술조사특집, 제주대.

_____(1976), “地名研究序說”, 『논문집』, 8, 제주대.

안교식(1989), “경남 합천군 취락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홍석(1974),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1987), “제주도 취락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주도 연구』, 제4집, 제주도 연구회.

원학회(1983), “서울시의 동명고”, 지리학총, 제10집.

윤흥기(1997), “뉴질랜드 마오리 지명을 통해서 본 우리 나라 토박이 땅이름의 지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성학(1975), “한국의 지명에 관한 연구”, 경북대 논문집, 제20권.

이원선(1998), “지명유래에서 본 자연마을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충북 음성군 음성읍과 원남면을 중심으로”, 청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석(1980), “중학교 사회 I 교과서의 지명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영(1979), “한국 도시의 언어 경관”,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9집.

이환곤(1986), “충청남도 지명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환곤(1986), “충청남도의 지명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숙(1979), “충북지명의 유형 분포에 관한 지리적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주영(1996), “마을의 지명과 자연환경 특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홍성군 양지마을 대상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원(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지리학 논총, 제9호.

조강민(1975),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지명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범훈(1981), “제주도지명연구”, 『경기대논문집』, 8, 경기대.

_____(1983), “제주도특수지명에 대하여”, 황희영박사송수기념논문.

최영아(1999), “부산의 자연마을 지명유래와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춘(1981), “고등학교 인문지리 교과서의 지명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외국문헌>

P.C.Wagner & M.W.Mikesell, eds. (1962),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사전류 및 지도>

국립지리원(1996), 1:50,000 지도.

민중서림(2003), 『옛센스 국어사전』.

오성찬(1992), 『제주도속지명사전』, 민음사.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s and Distribution of Place-Names in Jeju-Do

- Centering on Andeok-myeon in Namjeju-Gun -

Oh, Young-Sun

Geograph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Sung-D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he origins and distribution of place-names are analyzed and formed organizationally with a existence village, Andeok-myeon where is located in Namjeju-Gun, Jeju-Do. What is more, I would inquire into the natural and humanity features of each village through the place-names.

For purpose of the study, 528 place-names are distributed in 12 administrative Ri of Andeok-myeon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528 place-names, 59.8%(316 places) of higher percentage of natural place-names are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s, higher than those of 39.4%(208 places) are related to human environments.

* A these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2. The order of frequency of the place-names of villages is historical facts(109 places, 20.6%), geographical features(91 places, 17.2%), animals and plants(88 places, 16.7%) respectively, natural objects(73 places, 13.8%), situations and directions(64 places, 12.1%), economy(53 places, 10%), traffic(23 places, 4.4%) and remains(23 places, 4.4%).

3. Looking into the distribution of place-names by villag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the place-names relate to water is mainly located in Gamsan-Ri and Changcheon-Ri, field and orchard place-names which is located in Gamsan-Ri and Donggwang-Ri, legend and origin ones are located in Gwangpyeong-Ri and Sagye-Ri, natural feature ones are located in Daepyeong-Ri and Sangchang-Ri and the place-names related to animal are located in Hwasun-Ri, plant place-names are located in Deoksu-Ri and Changcheon-Ri, faith ones are mainly located in Changcheon-Ri.

4. 300(whole 56.8%) place-names are distributed in the seaside area. In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the rank order by itemization is animal, legend and origin, natural feature, water, field and orchard, faith.

5. 126(whole 23.9%) place-names are distributed in the middle area. In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the rank order by itemization is legend and origin, natural feature, plant, water, field and orchard.

6. 102(whole 19.3%) place-names are distributed in the mountainous area. In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the rank order by itemization is legend and origin, field and orchard, plant.

7. In conclusion, It would seem that the place-names themselves can tell us much about the earliest settlements in the villages. All the place-names didn't just happen because the first people to use them liked the sounds that the words made. our ancestors chose the place-names carefully to describe the people, the wildlife or the countryside where they lived or how they lived.

감사의 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봄날, 시외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름을 알리는 표지판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든 작든 마을마다 다른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웠습니다.

고향마을에 '토끼동네'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포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끼를 많이 키우는 동네이거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윗마을에서 구워낸 토기(土器)를 이곳 포구에서 배로 운반한 적이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땅이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지명을 연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명을 연구하면서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성대 교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지명과 관련된 외국자료를 제시하면서 격려해주신 손명철 교수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의 자연지리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갖게 해주신 김태호 교수님, 도시지리학과 컴퓨터지리학습을 통하여 지적호기심을 넓혀주신 권상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남제주군청 자료실에서 안덕면 관련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주신 김영균씨, 안덕면사무소에서 안덕면의 행정리 경계를 찾는데 조언을 해주신 지영준 개발계장님, 직접 감산리 지명답사 안내를 해주신 이경두 리장님과 오록생옹(84세), 바쁘신 가운데 창천리의 지명유래에 대하여 설명해주신 강태홍옹(86세), 강영범옹(76세), 강희경옹(74세), 대평리의 이태협 리장님과 김미숙씨, 사계리 총동창회지를 건네주신 정남부 총무님, 서광서 리사무소에서 어린시절 기억을 더듬어 지명을 설명해주신 고재순씨, 지도작업을 도와준 후배 강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논문을 읽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강만익 선생님과 학문의 동지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든든한 힘이 되어준 손병숙 선생님, 김미령 선생님, 임형신 선생님, 오영매 선생님, 이혜숙 선생님 그리고 고은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논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힘을 주신 존경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언니, 오빠, 조카들에게도 고마운 말을 전합니다.

2003년 7월 오영선